2019.04.18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③

▌토론회

IB 추진 : 어디까지 왔고 과제는 무엇인가?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2019. 04. 18. (목) 오후 2시

▌머리말

‘IB’ 도입 추진 현황 및 과제를 점검하는 2회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4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근본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7차 연속토론회 중 세 번째로 ‘IB’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안착 가능성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토론회의 주제 중 하나인 ‘IB’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사교육걱정이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모색함에 있어서 ‘IB’ 도입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IB’가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 위주의 지식 암기 교육, 5지선다형 문제풀이 중심 평가로는 창의적 사고증진이나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에 뜻있는 이들마다 유럽과 같이 학교와 국가시험을 논술형으로 바꾸자고 제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과 같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평가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불신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국가에서 논술형 평가는 공허하고 이상주의적 주장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IB는 논술형 평가를 도입해 평가 혁신을 이루면서도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청 차원으로 확대되어 일부 교육청이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11일 IB 도입을 주제로 삼은 첫 번째 토론회를 'IB는 한국의 낡은 평가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교육과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은 수능으로 대표되는 객관식 중심의 시험 체계가 전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논서술형 중심의 '꺼내는 교육'과 평가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단지 평가 형식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IB의 도입은 최종적으로 한국형 논서술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토론자들은 IB가 가진 교육적인 의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제도인 IB가 꼭 도입되어야 하는가하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과 IB 도입 자체로는 교육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효용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을 얻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토론회에서는 한국 교육의 문제인 평가의 패러다임을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도구로서 과연 IB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차 토론회(4월 18일 예정)에서는 IB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분의 발제는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교육과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은 국내 IB의 추진이 어디까지 왔으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교육청의 윤준 장학사는 IB를 추진하는 교육청의 관계자로서 실제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난제를 해결하며 정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소개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신동진 책임연구원은 IB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도있는 토론 과정을 통해 IB가 대한민국의 평가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타당한 도구인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걱정은 'IB'와 관련한 한 차례의 토론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4차 토론회에서는 2차와 3차 토론회에서 도출된 IB가 정책으로서 갖는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과 현실 정착 가능성 관련 요소들을 꼼꼼히 분류한 후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IB'가 대한민국의 낡은 평가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얼마나 합당한가를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 교착 상태의 한국교육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근본적 대입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4. 1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목 차

발 제

■ 제 1 발제: 신동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 1
"IBDP 도입과정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질문들"

■ 제 2 발제: 윤준(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23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형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운영 계획"

■ 제 3 발제: 이혜정(교육과혁신 연구소장) ····· 29
"대한민국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 시험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토 론

■ 제 1 토론: 우종수(DIGIST 이사장, 전)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 63
"한국 교육혁신의 가장 적절한 롤모델은 IB"

■ 제 2 토론: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69
"IB 도입보다 학교평가의 신뢰를 높여야"

제1발제

IBDP 도입과정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질문들

-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신동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목 차]

1.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해결해 낼 가능성으로서의 IBDP
   가. IB 도입의 의의
   나. IB 도입에 대한 우려
2. IBDP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 대학 입시의 측면
   나. 이수 여부의 확정 문제
   다. 학생선발의 문제
3. IB의 평가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가. 실행 능력의 향상 VS 많은 제재 공부
   나. 노력의 효과 없음
   다. 평가자의 신뢰성 확보
   라. IBDP는 절대평가 체제인가?
   마. IBDP는 과정평가 체제인가?
4. 평가의 본질에 비춰본 IBDP의 평가 체계

1.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해결해 낼 가능성으로서의 IBDP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이하 IBDP)는 매력적이다. 토론・과정 중심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신장시키고, 세계의 어느 대학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평가 방식은 매력적이다. 주입・암기중심의 수업과 객관식 상대평가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인권이 박탈되고, 모든 평가의 효용성이 의심받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매력적이다.

가. IB 도입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혁신학교를 비롯하여 교실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오고 있다. 그러한 시도들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실 수업 혁신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체적인 학교의 문화와 제도가 상대평가 위주의 줄세우기에 매몰되어 있고, 서열화된 대학의 입시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교실 수업의 개선이 단지 교실이라는 현장에만 머물러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전체적인 학교의 문화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각종 제도, 입시체제를 한 번에 바꾸는 개혁이 아니고서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꾸려는 시도는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한 교육제도의 개선이라는 방향과 대입제도의 개편을 통한 입시문제의 해결, 교수-학습 방법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수업의 질 개선과 같이 어느 하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다른 차원의 노력들을 해왔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학교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며, 대입제도에 논술이 도입된다고 해서 학교의 수업이 바뀌지 않으며, 일부 교사들이 교실 수업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성과 중심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세간의 비아냥을 듣기 일쑤다.

IB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의도는 △입시제도의 개선, △수업의 질 개선, △교사의 역량 강화, △평가에 대한 검증 체계 구축 및 △내신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좋은 요소 하나를 들여오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IB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를 바꾸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실패의 쓴 맛을 보아온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IB의 도입은 교육의 문화를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어느 한 요소가 아닌 교육의 문화 전체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학교의 수업은 개선될 것이며, 교육과정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학교의 수업과 일치된 대입제도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IB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은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에 있다. IB는 교육의 성과를 세계의 유수한 대학에서 인정받기 위해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업을 교사의 역량 강화와 유지에 두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의 큰 틀에서는 IB의 방식과 우리나라의 방식에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IB도 학교단위와 교사단위에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작성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계획서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IB에서는 교육계획서가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며 교육계획서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적어도 교육계획을 작성하는 교사의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업과 평가 역량은 지속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예로 든 교육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 학교의 부장교사나 교감, 교장, 장학사 단위의 교육계획서 점검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제도적인 대책만으로는 좋은 교육계획서는 결코 만들어 질 수 없다. 이처럼 문화가 없는 곳에 교육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그 교육 제도의 담당 주체가 변해야 한다. 교사도 교감도 교장도 장학사도 변해야 비로소 교육계획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주체를 변화시킬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IB 도입의 핵심이 있다.

물론 IB도 완벽한 교육 제도는 아님은 틀림이 없다. IB 외에도 우리나라보다 좋은 교육 문화를 가진 나라도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핀란드의 교육 문화를 들여온들, 우리나라가 핀란드가 아님에서야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IB에는 지역색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 문화를 수용함에 큰 무리가 없다. 또한 그 과정 전체에 대한 번역과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단지 제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것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 IB 도입에 대한 우려

하지만 IB를 도입하는 과정과 IB 자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해외의 연구사례들에서 IB 교육과정은 학생 본인이 창의적·비판적 문제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해결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IB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IBDP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주어진 학습량이 너무 많아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겪고 있으며, 교사들은 수업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역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한다[1].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한편으로 높은 성과를 위해 필연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IB 교육과정이 일반 공립학교에 도입될 경우, IB 교육과정과 국가 교육과정의 조정 문제, 국내 교육 현장의 상황과 적합성 문제, 과다한 IB 학교 비용 문제[2], IB 교사 확보 및 연수 문제, 학교 서열화나 계층 고착화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비판도 있다.[3]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경우 정부 단위에서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지원과 모든 고등학교가 서열화 되어 있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거나 보완해야 할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감수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IBDP를 이수한 학생이 대학입학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IBDP를 이수한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IBDP의 교육과정이 구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우리나라가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도입의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IB의 교육과정과 체계가 교육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IBDP 평가 방식

---

1) 류영규 외(2018)에서 재인용.

2) IB인정교가 되기 위한 공식 비용은 약 1,600만원, 비공식비용(컨설턴트 방문 및 인정 방문의 여비, 숙박비)이 1,000만원 넘게 예상되며, IB인정교가 된 후에는 매년 약 1100만원(DP의 경우)이 연회비로 들어간다. 이 외에 교사가 IB학교에서 근무하려면 IBO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하는데 교사 1인당 7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IBDP를 이수하기 위한 시험 비용이 학생 1인당 120만원 내외가 들어간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학교별로 인증 과정에서 최소 약 4,000만원, 인증 후 매년 최소 3,500만원 이상의 비용(학생수 20명 기준)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 류영규 외(2018)에서 재인용.

이 가져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IBDP가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얼마나 타당한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교육청의 주도로 IBDP 도입이 이루어져 일부의 학생들이 IBDP 과정을 이수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IBDP 과정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지도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IB 도입과정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 이 토론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문이 해소될 수도 있고, 새로운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11일에 있은 토론회('IB는 한국의 낡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결과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IB' 와 'IB의 도입과정'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2주 후에 개최할 것이다. 이 토론회가 다음에 있을 종합 평가의 과정에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IBDP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 대학 입시의 측면

[문제상황] IBDP의 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점수는 6개의 각 과목별 각 만점 점수 7점과 핵심과정(TOK, EE)의 만점 3점을 합친 45점 만점의 점수 체계이다. 이러한 점수체계는 우리나라의 내신점수체계, 수능점수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 입시의 과정에서 IBDP를 이수한 학생들의 점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IBDP의 점수를 각 나라의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처럼 IBDP의 점수를 그 나라의 평가체제 맞게 변환시켜 사용하는 방식이 그 하나다. 영국에서는 [표-1]처럼 A-level, SAT, AP 등 다양한 입학시험 성적을 같은 점수 체계로 변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1] 2019년도 입시를 위한 IB-Tariff Point 점수 변환표

IB Score (HL)	Tariff Points	IB Score (SL)	Tariff Points	IB Score (EE)	Tariff Points	IB Score (TOK)	Tariff Points
H7	56	S7	28	A	12	A	12
H6	48	S6	24	B	10	B	10
H5	32	S5	16	C	8	C	8
H4	24	S4	12	D	6	D	6
H3	12	S3	6	E	4	E	4
H2	0	S2	0				
H1	0	S1	0				

* 출처: UCAS(2018). New Tariff tables.
https://www.ucas.com/file/63536/download?token=lKi4qZse

이러한 변환이 가능한 이유는 오랫동안 입시 정보가 축적되어 왔으며, 다양하지만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입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수를 변환하는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점수의 체계와 평가방식이 유사한 영국의 경우 2010년 이후 IBDP 과정을 개설한 학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이다. IBDP를 이수한 학생들이 과정을 이수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성과에 비해 대학 입학과정에서 반영되는 점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BDP를 이수한 학생들의 대학 입학 실적은 다른 과정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IBDP학생들은 차별받는다고 느끼며, 이 불평등은 연구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확인된 사실이다.[4] 오랫동안 입시 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서로 유사한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환 점수를 사용하는 방식은 시험의 체계와 유형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경험이 축적되기 전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일본의 경우처럼 IBDP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하거나, 우리나라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예를 들면 츠쿠바 대학은 2014년도 입시부터 모든 학군에서 IBDP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IB 특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쿄대학의 경우는 2016년 입시부터 '추천입시'에 IBDP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IBDP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배려하는 전형(추천입시)

4) 이지은 외(2108)

을 마련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센터시험을 치지 않고도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대체로는 논술이나 면접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영국의 사례와는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공교육 체제에서 IB를 운영하는 학교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면 학생 선발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현재 도입을 준비 중인 교육청의 정책 지향을 보아서도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IB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IB를 운영하는 학교 내에서 IBDP과정을 선택하는 것도 학생에게 맡겨져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IB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IBDP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따로 마련한다거나 대학에서 IBDP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IB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의 경우처럼 논술 시험과 같은 추가적인 시험이 실시될 경우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학의 논술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전혀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IBDP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나. 이수 여부의 확정 문제

[문제상황] IBDP에서 최종적으로 24점 이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IBDP를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학생의 대학입학자격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며,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경우 IBDP 과정의 학생에 대한 이수여부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공교육체제 내에서 유일하게 IBDP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외고의 경우, IBDP와 한국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한다. 교육과정을 IB 방식으로 운영하고, IBDP의 기준에 맞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학교들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 승인을 받을 때 2년 동안 6개의 과목만 배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맞지 않아, IB에서의 한 과목을 4개의 과목으로 인위적으로 분리해 승인을 받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 IBDP가 공교육에 도입되면, IBDP를 받는 학생들은 경기외고의 학생들처럼 IB 교육과정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의 대부분의 IBDP 과정은 특별히 우수한 학업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선택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45점 만점에 24점을 받지 못하여 이수에 실패하는 학생들은 매년 20%내외에 이른다. 일본도 역시 대부분의 IBDP 운영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과정을 이수하게 하지만, 최근에 일본어 IBDP과정의 도입으로 운영을 시작한 학교들의 경우 이수에 성공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일반고와 그 환경이 매우 비슷한 가쿠엔고등학교의 경우 정원 70명의 외국어반 학생 중[5] 40명 내외의 학생들이 IBDP과정을 선택하는데 2018년 졸업생의 경우 단 5명의 학생만이 IBDP과정을 이수했다. 일본의 공교육 IBDP 도입 초기라 그 사례가 많지 않아 이수자가 많지 않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기존과는 다른 수업방식,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과 과제의 양 때문에 중도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고, 새로운 평가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교사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교육 관련 법령에 IBDP 자격을 취득(이수)하면 일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이수 학생들은 예상점수[6]를 기준으로 대학에 합격했다하더라도 성적 발표 후 합격이 취소된다. 우리나라에서도 IBDP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합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의 도입 준비과정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IBDP의 도입과 고교학점제의 시행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과목별로 학점의 이수와 미이수가 정해지게 될 것인데, IBDP의 미이수와 학점의 미이수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 학생선발의 문제

IBDP 과정이 어느 한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거나, 학교 내의 몇 개의 반을 운영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어떤 형태로든지 선발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종류의 고교서열화나 특별반 편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위의 문제 상황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일본의 경우 2019년 3월 기준 IBDP 인증을 받은 학교수는 총 45개교이며, 이중 일본어로 IBDP 과정을 인증 받은 학교 수는 20개교이다. 이 20개의 학교 중 국제고를 제외한 14개의 학교 중에서, 공립학교는 IBDP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없으며[7], 사립학교 중 5개의 학교가 IBDP 과정을 운

5) 외국어반 학생들은 930명의 전체 입학생 중 성적이 매우 우수한 편임.
6) IBDP의 최종성적은 1월에나 나오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대학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 IBDP 성적이 나온다. IBDP에서는 최종시험 전에 학교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예상 점수를 제출하도록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예상 점수와 학생들이 실제로 받는 점수는 상당히 비슷한 편이다.

영하고 있다.

[표-2] 국제고를 제외한 일본어 IBDP 운영학교 현황

	시작 년도	전체 인원	IB 인원	특징
에이수가칸고	2017	90	40	· 입학정보 없음 · 영어진행, 일본어진행 선택가능
교수고등학교	2003			· 일본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수업
가쿠엔고등학교	2016	930	약 40	· 토익 450 이상만 모집 · 수업료가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 · 영어와 미술 외에는 일본어로 수업[8] · 70명 중 원하는 학생들만 IB과정 · 최종통과는 2018년도에 5명
야마나시학교	2017	360	??	· IB 과정을 마치 특설반처럼 운영 · 정원을 따로 정하지 않음 · 좋은 대입 성과가 목적임 · 1기생 6명 통과
메이메이고등학교	2017	40	??	· 국제 연구소 내부의 학교

* 출처 : 각 고등학교 홈페이지, (2019. 04. 확인)

5개의 학교 중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일반적인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다시 3개로 줄어든다. 이 학교들 중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IBDP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다. 입학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2개의 고등학교의 경우 IBDP 과정을 학교 내의 특별반처럼 운영하고 있다. 가쿠엔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어과 정원 70명 중에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IBDP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어과 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어 상위권 학생들을 따로 모집하고 있다. 야마나시학교의 경우도 IBDP 과정에 따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지만 신청자 중 높은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7) 인증에 통과하였지만 최근에 인증 받아 신입생이 아직 뽑지 못했거나, 신입생이 있더라도 1학년이라 IBDP과정에 있지 않음.

8) 입학자료에는 일본어로 수업한다고 되어 있지만 학생의 인터뷰에는 과학을 영어로 공부한다고 되어 있어 좀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아주 자연스럽다. 특히 가쿠엔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어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장학금이 지원되어 학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이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고교서열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IB를 도입하려는 지역인 대구의 경우 고교평준화 체제에 있는 지역이라,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 또한 대구교육청의 방침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학교 내에서 IB반을 따로 운영하게 되면 그 반은 IBDP 교육과정의 특성상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금지되어 있는 특별반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9)]

이러한 운영방식은 내신성적 산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으로는 과목별 9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IBDP 과정을 이수하게 될 소수의 학생들의 성적은 따로 산출될 수밖에 없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소수의 학급에서 내신 성적을 9등급 상대평가로 나누는 것은 원활한 성적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내신 9등급의 기준이 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경우 IBO[10)]의 점수 검증 과정 대상이 아니므로 평가의 객관성 시비에도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3. IB의 평가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가 현재 IBDP의 과정을 운영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가정은 IBO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우리나라 자체에서 IBDP와 동일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상을 해 본다면 아마도 지금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그와 유사한 단위의 단체가 IBO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의 내신과 수능이 완전히 IBDP의 방식으로 대체되며, 교육과정 또한 IBDP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전제되는 이유는 IBDP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장점이 IBDP의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것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BDP에서 문학 시험은 학생들이 배우지

9) IBO(2009)에 따르면 IBDP에 입학 절차는 각 '학교별 입학 정책'에 명시되어야 하며, 입학의 과정에서 '진로, 동기, 자제력, 인내심'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을 위해 작문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10)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IB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관리하는 기구

않은 문학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평가한다. 이것을 위해 IBDP 교육과정에서는 HL과정의 경우 총 240시간의 수업을 이수하기를 요구한다. IBDP와 동일한 성취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문학 과목은 대략 70시간을 이수하기를 요구한다. 이 70시간이라는 시간은 문학작품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에세이로 써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IBDP의 평가체계가 가지고 있는 요소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전제로 IB가 한국의 교육과정으로 전환된 후에 생길 수 있는 평가의 문제점을 문학 과목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가. 실행 능력의 향상 VS 많은 제재 공부

IB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평가의 초점을 맞춘다. 학생들이 외부평가를 볼 때 실행 능력을 평가받기는 하지만 학교의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제재(題材)가 시험에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IB에서는 문학 과목에서 9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 학생들이 문학작품의 형식적, 문체적, 심미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격려한다.

이다. 이 목표는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로 구체화 된다.[11]

> 언어, 구조, 기술 및 스타일을 분석하고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능력을 표현한다.

이 평가 요소는 필기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최종 시험인 외부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비율이 30:70이므로 외부평가의 비중이 더 높고, 학교에서의 수업도 이 외부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 물론 목표와 평가 요소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목표와 평가요소가 가장 유사한 것을 예로 들었다.

문제는 외부평가를 대비하는 방식에서 생긴다. 과목과 평가 요소의 특성상 학교에서의 수업 중에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연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IBDP 과정의 경우 HL 과정[12]에서는 240시간 동안 총 13개의 작품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의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과 평가에서도 만약 최종시험에 학교에서 배우고 연습한 작품이 출제된다면 수업은 주입식 암기식 수업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IBDP 과정에서의 최종시험은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작품이 출제된다.[13] 이 경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도 작품을 미리 읽었거나, 그 작품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당연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도 IBDP만큼은 아닐지라도, 학력평가식의 암기식 문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문학 감상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리고 실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현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의 작품을 통해 학생들의 작품 감상 능력을 키워주기 보다는 다양한 작품을 많이 경험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거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IBDP가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나. 노력의 효과 없음

학생들의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불공정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말을 잘하는 능력은 본래 그 능력이 낮은 학생이 처음부터 능력이 좋았던 학생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 만약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적의 변화가 없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닌가?

12) IBDP에서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진다. 동일한 교과에 대해 SL(표준과정)과 HL(고급과정)이 개설되면 학생들이 두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대학에서는 대체로 HL과정을 이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13)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IBO 측에서는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작품을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학생들도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지은 외(2018)에서는 영국에서 IBDP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네 가지 이유 중 세 번째로 시간이 지나도 성적이 오르지 않음을 꼽았다.

IBDP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성적 인상(grade-inflation)이 없는 한결같은 프로그램 특성으로 인해, 성적 인상의 경향성이 있는 에이레벨[14]에 밀리는 점이 세 번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IB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며, 실제 2013년에는 IB의 최고점수인 45점을 받은 학생이 전 세계에서 0.25%만을 차지하였다. 영국의 IBDP 시험에서 2008년에는 응시생의 79.17%가 24점 이상을 받아 합격하였으며, 1.9%만이 40점을 넘었다. 5년이 지난 2013년에는 응시생의 79.06%가 합격하였으며, 2.04%만이 40점을 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응시생 수는 증가하였는데, 그 비율은 두 기간 모두 같다는 점에서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추구하는 IBDP 시험으로 고득점을 받기에는 어렵다는 결과가 입증되었다. 반면, 에이레벨은 IBDP에 비해 성적 올리기가 쉬웠고, 몇몇 연구들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1988년에는 F 등급을 받았다면, 2005년에는 C 등급을 받았다는 결과를 통해 에이레벨에서의 고득점이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런 점에서 수험생들은 힘들게 IBDP 공부를 하기 보다는 편하게 에이레벨로 고득점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분석의 요점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오르지 않은 것은 시험의 유형을 안다고 해서 그것에 대비하여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대처 능력이 좋아져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능시험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IBDP의 점수를 IBO측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교육의 효과 없음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 평가의 기준과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시험이 고부담 시험이라면 시험을 치는 사람과 그 시험을 돕는 사람 모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노력은 당연히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위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사가 글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를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면 글쓰기 능력의 향상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요소만 생각해 보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전체 학생의 성적은 점차 높아져야 한다. 에이레벨이나 수능 같은 경우처럼 말이다. 하지만 IBDP의 경우 성적에

14)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2년간 진행된다. 시험은 2년차 마지막학기에 응시하게 되며 대체로는 자신이 진학하고자하는 대학과 연관성이 있는 과목을 선정하여 공부한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성적의 분포를 의도적으로 조정하거나, 교육의 효과없음에 대한 반증일 뿐이다.

다. 평가자의 신뢰성 확보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논술형 시험을 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평가자의 신뢰성을 문제로 꼽는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논술을 채점할 교사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IB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IBDP에서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성적을 합쳐서 최종성적을 결정한다. 이 때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채점의 점검과 수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에서 다르게 진행된다.

외부평가의 경우, 채점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검증과정에서 모든 채점관의 채점성적은 선임 채점관에 의해서 점검되고 수정되는 조정과정을 거친다. 채점 경험이 많은 선임 채점관은 채점관 10여명을 지도하는데, 각 채점관이 성적부여한 채점표 전체의 15% 정도(10개에서 20개 채점표)를 무작위로 제출받아 점검한다. 채점관의 채점은 아래와 같은 통계분석을 통하여 채택, 일부 수정, 재채점 판정을 받는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이다. 선임 채점자와 평가결과의 신뢰도는 상관관계에 의해서 판단된다. 상관관계가 0.9 이상이면 허용범위로 인정하나 상관계수가 0.9 이하이면 다른 채점관이 다시 채점한다.[15]

15) IBO(2004)

[표-3] 상관관계의 예시

상관계수 / 선임 채점자의점수	0.95	0.9	0.85
5	3	4	5
4	3	4	4
4	3	4	2
4	3	3	3
3	2	3	3
3	2	3	2
3	2	3	2
3	2	3	2
2	1	1	1
2	1	1	1
1	1	1	1

둘째, 선형회귀선 기울기를 분석하여 채점자의 채점성적 폭이 적정한지 판단한다.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상관계수를 이용한 분석법은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과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적절히 줄세우기만 하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귀선 기울기를 사용한다. 만약 회귀선 기울기가 0.5보다 낮다면 빈약한 답안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주고, 우수한 답안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점수를 준 것이기에 상하 점수의 차이 폭을 좁힌다. 반대로 회귀선 기울기가 1.5보다 가파르면 채점자가 우수한 답안과 빈약한 답안에 대하여 점수 차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에 선임 채점관은 상하 성적 차이를 확대한다.

셋째, 선임 채점관의 채점성적 평균과 채점관의 성적평균을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총점의 10% 이내로 작아야 한다. 예컨대, 답안 총점이 30점이면 채점자의 점수는 선임 채점관 간의 평균 점수 차이는 3점 범위 내에 있어야한다.

이상의 점수조정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조정 기법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샘플을 분석하기도 하며, 당초 채점을 부분 수정하거나 다시 채점을 한다.

내부평가에서도 IB 학교 교사들의 성적평가에 대해서 외부평가의 조정방식에 따라 성적채점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점수가 조정되지만, 외부평가 조정 기준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교사의 점수를 수정하는 경우는 적절성이 명백히 떨어지는 경우이다. IBO 평가본부는 내부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점수를 다시 매기는 것에 신중하다. 교사의 내부평가를 문제 삼는 기준도 외부평가보다 낮아서 채점자 간의 점수 상관관계는 0.8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회귀선 기울기도 0.5에서 1.5사이를 요구하지 않으며 채점자간의 평균점수 차이 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런 사유로 내부평가는 외부평가에 비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16]

이처럼 IB에서는 교사의 채점에 큰 흠이 발견되지 않으면 교사의 채점을 신뢰하는 편이다. [표-3]에서보듯이 상관계수 0.85의 허용범위는 매우 넓다. 학생들의 우열관계가 적절하기만 하면, 일부학생의 점수가 선임 채점자와 크게 차이 난다하더라도 적정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IB가 채점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교사의 객관적인 채점 능력의 확보라기보다는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과 채점결과의 공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IBDP는 절대평가 체제인가?

우리는 상대평가가 학생들을 어떻게 비인간화하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평가 체제를 개선하고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IB의 방식은 절대평가 체제인가?

절대평가란 도달도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단계별로 다른 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제를 완수하면 평가된 능력의 단계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IB에서는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평가 준거들의 등급 간 배점차이는 내용이나 구조의 질적 차이를 바탕으로 구분되어 절대 평가 체제처럼 보인다.

16) 손민호 외(2018)

[표-4] 문학과목의 외부평가 중 첫 번째 지필시험 문제의 평가 기준

점수	평가 기준
0	답안이 아래의 설명에 기술된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	구절을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거의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해석을 덧붙였다.
2	구절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있지만 해석에 대한 시도는 거의 없으며 작품 내의 구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3	제시된 부분을 적절히 이해하고 있으며, 작품내의 구절로 대부분 뒷받침되는 해석으로 표현했다.
4	제시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작품내의 구절로 완전히 뒷받침되는 납득할만한 해석으로 표현했다.
5	제시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작품내의 구절로 적절히 뒷받침되는 강하고 납득할만한 해석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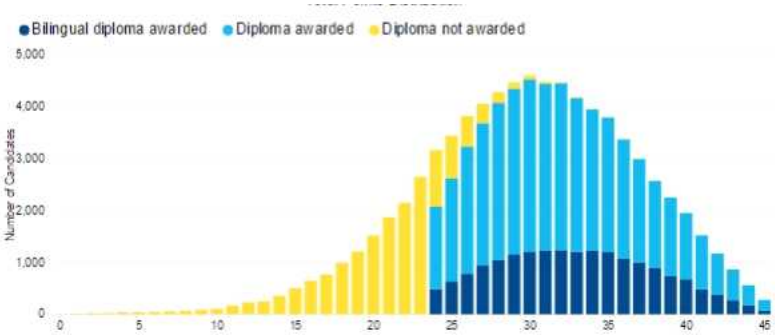
* 출처 Language A: literature guide First examinations 2013

위 평가 기준에서 3점과 4점의 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3점과 4점의 평가 기준은 '적절한(adequate)'과 '잘(good)'에 의해 구분되며, '납득할만한(convincing)'의 유무, 그리고 '대부분(mostly)'와 '완전히(fully)'에 의해 구분된다. 문학작품에 나온 어느 구절을 '적절히' 이해하는 능력과 '잘' 이해하는 능력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것은 '적절히'나 '잘'이 가진 어휘의 의미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 수준의 질적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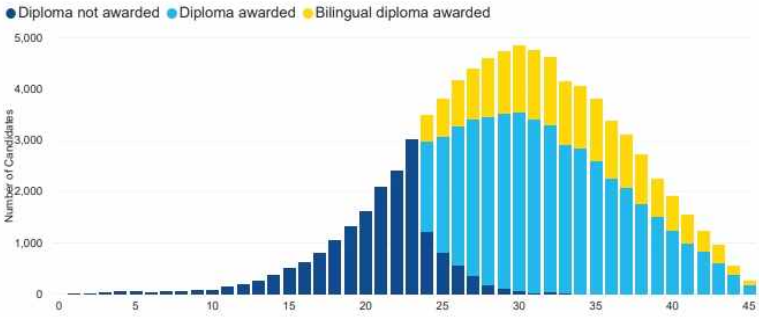
> 이것은 개별화된 과제에서는 정해진 답안을 얼마나 동일하고 정확하게 작성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질적으로 차등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평가에서 타당성은 평가 문항이 아닌, 평가 답안에서의 질적 심화 정도, 깊이와 같은 애매모호함을 어떻게 적절하게 차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결국 평가 준거로서 질적 수준을 차등하는 방식은 명시적으로는 의미의 모호성을 띨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는 개별화된 과제 설계에서 따라오는 평가 준거의 특성이 된다.[17]

17) 손민호 외(2018:170)

[그림-1]2017년도 IBDP과정 응시생의 점수 분포도



[그림-2] 2018년도 IBDP과정 응시생의 점수 분포도



* 출처 :IBDP 통계 게시판
https://www.ibo.org/about-the-ib/facts-and-figures/statistical-bulletins/diploma-programme-statistical-bulletin/

위 그래프는 2017년도의 IBDP과정 응시생과 2018년도의 IBDP과정 응시생의 분포표이다. 이 완벽하게 동일한 그래프는 과연 절대평가의 결과로 볼 수 있는가?

비교대상이 없이 학생의 성취수준을 5단계 중 어느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 평가의 과정에서 더 좋아 보이는 답안이 있을 경우 채점자는 그 답안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채점자가 상대평가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고 수준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표현될 경우 채점의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상대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마. IBDP는 과정평가 체제인가?

우리는 학습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결과중심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결과중심 평가사회에 살고 있다. IB는 이러한 결과중심평가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가?

과정평가는 과정을 유도하고 과정 그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평가이다. 따라서 과정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평가는 최종 결과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과를 위한 그 다음의 학습 과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IBDP에서 사용하는 평가는 과정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IBDP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평가는 학기말에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과정평가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학기 중간에 이루어지는 '성찰(Reflection)'의 과정이다. 따라서 과정평가는 IBDP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평가'의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다만 이 '성찰'의 과정은 IBDP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 과정평가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 주고 그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교사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좌우된다.

IBDP에서 과정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은 누적된 학습의 경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말에 있는 결과에 통합시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IBDP의 평가방식은 과정중심평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결과중심평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과정이 점검되고 좀 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되기는 하지만 평가의 과정 자체가 과정평가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IBDP에서의 평가 체제의 차원에서는 학습자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뿐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4. 평가의 본질에 비춰본 IBDP의 평가 체계

서두에서 밝혔듯이 IBDP는 매력적이다. 그 매력은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대입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라도 부족한 점은 있게 마련이다. 이번 발제에서는 그 부족한 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만약 그 부족한 점이 개선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매력적인 평가를 가지게 될 것이다.

IBDP는 교육의 과정과 평가가 외형적으로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격은 매우 다르다. IBDP에서의 평가는 대입전형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본질이 있고, 교육의 과정은 학생의 성장에 그 본질이 있다. 이 서로 다른 본질은 평가가 학생들이 성장해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결합된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IB에 대해 알려진 것과 사실은 다른 점이 있다. IBDP가 매력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평가자의 신뢰성을 잘 확보해서가 아니고, 절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과정평가 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도 아니다. IB의 성공은 교사가 노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데 있다. 교사의 노력을 강제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IBO의 주된 관심은 학생에 있지 않고 교사에 있다. 교사의 성장이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높은 투자 효율을 보이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본질은 학생의 선발을 돕는데 있지 않고,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돕는데 있어야 한다. IBDP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이 있다. 대입전형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버리고 그 교육의 과정을 오롯이 평가로 담아낸다면 더 학생의 성장을 위한 평가 체제가 될 것이다.

당연히 앞서 제기한 도입과정에서 우려되는 점과 IB가 가지고 있는 평가체제에 대한 의문들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는 IB의 도입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IB의 교육철학과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우리의 지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IB의 평가체제가 우리의 대입제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교육과정의 운영상에 일어날 문제점들은 없는지, IB의 교육방식이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지, 도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운영방식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도입이 결정된 후 일어날 운영상의 어려움은 무엇일지 등 수많은 요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좋은 것임에도 다시는 우리의 참고 대상이 되지 못한다든지, 들여오고 나서야 우리에게

는 맞지 않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석 외(2018), 「IB 교육과정-수업-평가 패러다임의 대구 초·중·고 활용 방향 탐구」,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김 용(2018), '일본 대학입시 개혁과 IB 도입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교육비평 41」, 교육비평.

김천홍(2018),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국내 공교육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류영규 외(2018), 'IBDP 공교육 도입의 선결 조건 탐색', 「교육혁신연구 28」,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

손민호(2018), 「고교 단계 IB AP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 교육부.

이지은 외(2018), '세계의 IBDP 교육과정 도입 과정 및 동향 분석:교육과정적 이슈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6」, 한국교육과정학회.

이혜정 외(2017), 「비판적 창의적 역량을 위한 평가체제 혁신 방안 : IB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정영근(2018), '일본 정부의 교육정책과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 IB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18」, 한국교육개발원.

IBO(2004), 「Diploma Programme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IBO(2009), 「The Diploma Programme From principles into practice」.

IBO(2011), 「Diploma Programme Language A: literature guide」.

IBO(2013), 「Diploma Programme Assessment procedures」.

IBO(2013), 'Group 1 English A: literature Higher level and standard level Specimen papers 1 and 2'.

IBO(2015), 「IB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s: A guide to assessment for teachers and coordinators」

IBO(2018),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s—Quality assessments in a digital age」.

IBO(2018), 「Diploma Programme Assessment procedures」.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 현황과 쟁점 탐색 세미나 자료집(2018.0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2발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형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운영 계획

윤준(대구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1 추진 목적

○ 우리교육청이 쌓아온 **수업 개선 노력의 발전적인 안착**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2015 개정 교육과정 특화 모델 개발**

○ 교육 여건이 취약한 학교 중심 IB 운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교원의 **미래교육 실천 역량 함양 및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 신장**

○ 배움에 즐겁게 몰입하는 학습자 양성으로 **배움을 즐기는 평생학습자로의 성장 기반 조성**

2 추진 계획

운영 기반 구축

○ 국제 바칼로레아(IB) **한국어화 추진을 위한 IBO와의 협약서 체결**

('19. 4월 예정)

○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 확대 운영**

- **('18) 관심학교 20교 → ('19) 관심학교 20교, 후보학교 9교**

○ IB **운영 추진단 운영**

- IB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단위학교 맞춤형 지원

교원 실천 역량 강화

○ IB 관련 **교원 연수 운영**

- **('18) 15과정 937명 → ('19) 25과정 4,120명**

○ IB **학교급별·교과별 전문가 양성**

연번	시기	주요 내용
1	2019. 4월	• 대상자 선정
2	2019. 5월 ~ 6월	• 온라인 연수(1차)
3	2019. 7월	• Workshop(3일간, 한국개최)
4	2019. 8월 ~ 9월	• 온라인 연수(2차)
5	2019. 9월	• Annual IBEN* Workshop**(3일간, 한국개최)
6	2019. 10월 ~ 2020. 2월	• 국내 IB 학교 파견 근무(2~3개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B **학교급별·교과별 연구회 24팀 운영**

공감대 형성

○ 국제인증 교육과정(IB)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지역사회,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정책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다큐멘터리 제작 및 지상파 방송 송출

- IB 인식 제고를 위한 전문가 특강, 포럼, 토론회 등 개최

○ **국내외 IB 교육기관 교류 확대**

3 중장기 로드맵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PYP	후보학교 1~3학년	후보학교 1~6학년 <인증완료>	인증학교 (전학년)	➡	➡
MYP	후보학교 1~2학년	후보학교 1~3학년 <인증완료>	인증학교 (전학년)	➡	➡
DP	후보학교	후보학교	후보학교 Pre-DP(1학년) <인증완료>	인증학교 · 2학년	➡ · 2, 3학년 · 외부평가(11월) · DP 1기 졸업 (2024. 2월)

※ PYP, MYP: **후보학교** 단계에서부터 **학년 단위** 적용

※ DP: **인증학교** 승인 후 **학급 단위** 적용

4 기대 효과

○ '교육과정 재구성-생각을 꺼내는 학습자 중심 수업-과정중심 논·서술형 평가' 활성화를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함양**

○ 배움의 본질에 충실한 자율적 학교 문화 조성으로 **미래교육 패러다임 현장 조기 안착**

○ 교육 여건이 취약한 학교 중심 IB 운영을 통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 **배움을 즐기는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자로 성장하는 학생과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교원 양성**

▌제3발제

대한민국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 시험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대한민국의 시험]

저자 이 혜 정 (교육과 혁신 연구소장)

- 목 차 -

1. 세계의 대학 입시 비교
2. 일본의 교육혁명
3. 한국의 교육혁신을 위한 IB 한국어화 및 공교육에 시범 도입

2022년 대입정책 결정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는 대입특위와 공론위로, 결국 국민에게 떠넘겼다. 객관식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입장과 학종이 교육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입장 간의 갈등이 연일 보도됐다.

예상대로 승자 없는 싸움이 되었다. 객관식 상대평가 수능으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해도 이길 수 없다. 학종은 아무리 교육적으로 더 타당하다 하더라도 중하위권에게 사실상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 상태로는 공정 명분을 이길 수 없다. 양쪽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가 획기적인 변화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었다. 누가 이기든 현재의 평가 내용이 패러다임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어차피 길러지는 능력은 같을 것이고 그리하여 4차산업혁명 대비할 역량을 기를 수 없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가? 2022년 이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답도 없는 이 싸움을 매년 공론에 붙일 것인가?

대입제도는 무엇을 얼만큼 반영하는지의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학생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예 교육의 방향 자체가 틀렸으면, 그 교육체제에서 성공한 집단도 이 시대에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면, 논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해외 선진국의 대학입학시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우리와 유사한 객관식 집어넣는 교육 패러다임이던 일본이 최근 어떻게 교육혁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한국 공교육 패러다임 혁신을 위해 IB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 및 과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1. 세계의 대학 입시 비교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다. OECD나 세계 미래학자들도 21세기 역량에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능력(4C: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munication, Collaboration)" 등을 빠짐없이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능과 내신 시험으로는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역량은 집어넣는 교육만으로는 결코 기를 수 없다.

각국의 대입시험 문제만 펼쳐놓고 비교해 봐도 그 나라가 무슨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지가 한눈에 비교된다. 이 장에서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수십 년간 검증된 영국의 에이레벨,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미국의 AP/SAT/ACT, 국적이 없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이하 IB)를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각 대학입학시험마다 총 몇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시험 기간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내신 반영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주관하는지 등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기르고자 추구하는지는 상당히 일관된 유사점이 있다. 간략히 몇 개의 샘플 문제를 먼저 보자.

가. 영국

에이레벨(A-LEVEL)은 Advanced Level의 줄임말로, 고2 末에 AS(Advanced Subsidiary) 시험

과 고3 末에 A2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구성된다. 영국은 중등학교졸업자격시험(GCSE: Graduate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을 고1 末에 보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GCSE를 통과하면 A-Level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최근에는 에이레벨 총점에서 AS의 비중을 줄이고 A2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및 대입시험인 에이레벨의 역사 시험문제의 예시를 아래에 제시한다. 90분 동안에 아래 문항 중 10점짜리 문제 하나와 20점짜리 문제 하나를 골라서 쓰는 방식이다. 전과목이 논서술형 절대평가이고 선다형 객관식 시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대입시험에서 모두 이런 방식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한다. 시험문제 출제는 캠브리지 등 공인된 기관에서 주관하고 채점은 교사들 중에서 차출해서 진행한다.

- 산업화가 중산층에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가? (10p)
- 1912년 대선에서 루스벨트가 왜 패했는가? (10p)
- 19세기 말까지의 정치구조에 산업화가 왜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2개 국가의 사례를 들어, 그 이유를 평가하시오. (20p)
- "히틀러의 대외 정책은 독일의 1차 대전 패배를 복수하고 싶은 원한에 기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하는가? (20p)

영국은 이 장에서 소개되는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제너럴리스트보다 스페셜리스트를 기르고자 하는 교육 철학의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비롯한 영국의 대학은 교양과정 없이 전공과정으로만 3년 동안을 공부하게 되어 있다. 영국의 대학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혹은 전과가 거의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입학할 때 지원한 학과의 전공과목만을 심층 공부하는 형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

이러한 교육철학이 대입준비과정인 에이레벨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른 선진국들의 교육과정에 비해 에이레벨은 선택해야 할 과목 수가 가장 적다. 3과목만 선택해도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다. 예컨대, 공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수학, 물리, 화학만 선택하고 언어나 사회과학 과목을 전혀 선택하지 않고도 대학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대신 선택과목이 적기 때문에 선택한 과목에서는 매우 심도 있는 수준을 요구한다. (과목의 선택과 집중은 고 2,3에만 해당된다. 고1 末에 치르는 GCSE는 과목이 많다.)

그런데 몇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영국의 에이레벨도 프랑스, 독일, 미국, IB와 마찬가지로 객관식시험 전혀 없이 전과목 절대평가 논서술형으로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수업을

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나. 프랑스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대입시험이기 이전에 고등학교졸업자격 시험이다. 시험출제는 1년 이상이 걸린다. 교육부가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 시험 출제를 의뢰하면, 각 교육청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담당자가 공동위원장으로 맡는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위원으로 차출되어 출제를 하는데 여러 문제들 중 최종 문제는 교육감이 선택하고 공동위원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즉, 주관 및 관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하고 시험출제 및 채점은 교사들이 담당한다. 바칼로레아 시험의 예시를 아래에 제시한다.

■ **인문학**
-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 **자연과학**
- 현실이 수학적 법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가?
- 생물학적 지식은 일체의 유기체를 기계로만 여기기를 요구하는가?

■ **사회과학**
- 권리를 수호한다는 것과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
- 권력 남용은 불가피한 것인가?

전과목 논술형 절대평가이고 객관식은 없다. 대입시험도, 평소 내신도 이러한 시험문제를 풀고 이에 대한 수업을 한다. 일반 대학 진학시에는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바칼로레아 시험 점수만 제출하고 입학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점 만점인 바칼로레아에서 10점 이상이면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입학이 쉽다고 해서 졸업까지 쉬운 건 아니다. 또한 입학이 쉽다고 해서 대학이 평준화되어 서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다. 대학 중에서도 인기학과인 의대나 법대의 경우 1학년 지나고 30~70%가 탈락한다. 의대 같은 경우 최종 졸업률은 10% 정도 되는 곳도 많다. 또한 내신 상위 15~20%의 학생들은 그랑제콜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교육기관인 프레빠에 진학하려고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한다. 프레빠에 입학할 정도면 바칼로레아 점수 17점 이상은 될 수준인데 바칼로레아 점수로 변별하지 않고 내신점수로 심사받아 입학한다. 프레빠에서 2-3년 간의 공부를 한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프랑스의 지도층을 양성하는 그랑제콜에 입학한다. 즉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고등교육기관은 평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는 사실상 고등교육기관이 대학 이외에 상위

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프레빠도 있고 그랑제콜도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입학체제를 논할 때 대학만으로 국한해서는 합당하지 않다.

최근 마크롱 정부에서 바칼로레아를 포함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바칼로레아식 평가와 교육 내용을 질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 현재 대학입학 지원자가 많을 경우 입학시 추첨을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오랜 비판을 고려하여 시험 과목의 수를 조정하고 대학에 입학생 선발권을 주고자 하는 등 보다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즉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왔던 바칼로레아식 시험문제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교육은 견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 독일

독일의 대입시험인 아비투어는 영국의 에이레벨이나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달리 내신이 주요 비중으로 아비투어 총점에 포함되어 있다. 내신이 2/3, 수능이 1/3 반영된다. 보통 답안지가 A4로 16장씩 되기도 해서 시험시간도 3~4시간 이상 걸린다. 35%에 해당하는 외부시험도 일선 교사들이 출제하는 문제 중에 선정되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과 그게 벗어나지 않는다. 채점은 해당 학생의 담당교사가 1차로 채점하고 다른 교사가 2차 채점하는 교차채점을 하는데, 지금까지 교사의 채점 부정사례가 제기된 적은 거의 없다. 독일은 일찌감치 고교학점제와 문•이과통합을 실현해 왔다. 아비투어 시험과목은 총 4~5과목을 선택하며, 한 주에 한 과목만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총 한달 가량 걸린다. 독일 역시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어서 입학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기학과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고 입학 후 재학 중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아비투어 역시 전과목 논술형 절대평가이고 객관식 선다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비투어는 수능은 전과목 논술 절대평가이고 내신은 논술형 및 수행평가로 절대평가 하는 시스템이다. 아비투어는 문제의 난이도가 우리나라 수능보다 훨씬 높고 특히 수학 과학은 매우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국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평균적인 영어구사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시험문제의 예시로 살펴보자. 아비투어 외국어(영어) 시험은 270분 동안에 여러 문제를 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택일하여 쓰는 작문 문제 일부를 제시한다.

영어(외국어로서) 시험

- 교육부장관을 인터뷰하려는 팀의 대변인으로 당신이 선발되었다. "학교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주고 있나?" 라는 주제에 대하여 인터뷰 문안을 작성해 보시오. 당신의 인터뷰 문안은 직접 질문이나 제안 모두 포함할 수 있다.
- 유럽 의회 대표에게 당신과 당신 세대가 걱정하는 이슈들에 대한 편지를 써 보시오. 가능한 해결책도 제안해 보시오.
- 학교폭력은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해왔다. 유력 일간지에 그 원인과 효과를 분석하는 신문 기사를 써보시오.
- "부모는 성인의 나이에 이른 자녀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로 관여할 권리 혹은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쓰시오.

독일에서도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떠한 평가에서도 객관식 정답찾기 상대평가는 존재하지 않고, 전과목 절대평가 논술형과 수행평가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영국, 프랑스, IB와 동일하다.

라. 미국

미국의 대입시험은 SAT, ACT, AP가 있다. SAT는 연간 7회, ACT는 연간 6회 보는 자격고사화되어 있는 시험으로, SAT(Scholastic Aptitude Test)는 미국의 대학관계자들이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인 College Board에서 시험출제를 하고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채점하는 시험이다. 미국 대입에서 SAT와 같은 기능을 하는 ACT(American College Test)는 같은 이름의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다. SAT, ACT 모두 몇 번을 봐서 잘 나온 점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의 점수만 있으면 된다. 시험문제는 주로 선다형 객관식 문제이지만 에세이 시험이 별도로 있다. 주요 대학들은 에세이 시험이 포함된 점수를 선호한다. 한편 SAT, ACT, AP 모두 절대평가이다. 다만 SAT와 ACT는 연간 시험 횟수가 여러 번이다 보니 매 시험마다 난이도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답의 갯수가 같더라도 점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AP(Advance Placement)는 College Board에서 주관하는 대학과정의 선이수 인증 시험이다. AP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미국의 SAT, ACT, AP는 유럽권 국가들과 달리 긴 논술형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과 단답형 및 짧은 에세이로 이루어지는데, 그 때문에 사교육 훈련을 받으면 효과를 보기도 한다. SAT, ACT, AP는 모두 과정 이수에 대한 의무 없이 볼 수 있는 '시험'이다. AP는 본래 AP 과목을 학교에 개설해서 개별학교들의 수준을 올리려는 목적도 있었는데, 실제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혼자

공부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도 시험을 치르는데 아무 문제 없다. 과정을 평가하지 않고 시험으로 평가하려는 이 취지는, 미국이 유럽국가들과 달리 땅이 매우 넓고 주마다 다른 가치와 특색을 지니는 연방정부이다보니, 혼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하는 사람들에게도 불리하지 않도록 '과정'이 평가되지 않아도 단독으로 치를 수 있는 '시험'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대학입시에서는 이러한 AP, SAT/ACT 점수 이외에 내신점수와 각종 비교과활동들이 매우 중요한데, 내신의 평가는 유럽국가들과 같이 대부분 논술형과 수행평가로 이루어진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내신과 비교과활동이 SAT/ACT 점수보다 훨씬 결정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입시험들이 선다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미국의 학교 수업이 우리나라와 같이 객관식 정답찾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미국은 대입에서 매우 중요한 내신은 대다수가 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 자체의 모습은 유럽권 학교들과 비슷하게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IB 학교들이 다수 있는데, IB 학생들은 별도로 AP를 하지 않고 IB 이수과목(특히 고급수준(HL) 과목)이 AP과목처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IB 학생이라도 SAT나 ACT 중의 하나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IB에서 상위권인 경우는 별도의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ACT나 SAT에서 고득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마.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B는 국적이 없다. 어느 한 국가의 교육과정이나 평가가 아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영국에 채점센터를 두며 전 세계에 지역별로 지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교육재단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및 대입시험이다. 고등학교 과정은 1968년부터 개발 운영되어 왔는데, 교육적 우수성과 채점의 엄정성이 널리 알려져서 전세계의 주요 대학들에서 대입시험으로 오랫동안 인정해 왔다.

45점 만점으로 구성된 대입시험은 고급수준 3과목, 표준수준 3과목에 더하여 소논문, 인식론 철학논문, 창의체험활동이 필수요소로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급수준 과목들은 미국 대학 진학시 AP처럼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평가는 전과목이 논술형 시험이고 수행평가가 포함되며, 아비투어처럼 최종 총점에 내신점수가 포함(과목별로 비율은 다름)되어 있

다. 내신과 외부시험(수능) 모두 절대평가이다. 표준화된 45점 중에 내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부풀리기 같은 영향이 없도록 내신 평가 중 일부를 무작위 검토하여 부풀리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그 학교 전체 내신점수를 내리는 방식으로 내신을 조정한다.

이처럼 IB는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행평가와 논술형 과정 평가인 내신이 총점에 함께 반영된다는 점에서, 내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마지막 시험 점수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위의 다른 대입시험들은 국가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입에 시험 점수 외에 무엇을 얼만큼 반영할지 국가별로 패턴이 있으나 IB는 특정 국가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수를 어떻게 대입에 반영할지는 국가별로 대입별로 상이하다. 예컨대 대입에서 에이레벨 점수만을 심사하는 영국 대학의 경우는 IB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하지만, 내신과 각종 비교과활동을 중시하는 미국 대학의 경우는 IB 점수 이외에도 학생들의 비교과활동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IB에는 에이레벨과 달리 소논문이나 창의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이 교육과정에 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 밖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했던 소논문과 창의체험활동을 그대로 비교과활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즉, 평가의 제도로만 보면 비교과 없이 내신과 수능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입의 기본인 단순성, 명료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학종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치 있는 비교과활동과 평가들이 내신에 정량화되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종 이상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원하는 일부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IB 교육 체제 하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종보다 공정하다.

시험문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시험지에는 여러 문항이 제시되지만 한 문제만 택하여 90~120분 동안 쓰면 된다. 참고로 IB에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한국문학 및 언어) 교육과정 및 평가가 운영되고 있다 (SAT나 프랑스 바칼로레아에 있는 한국어 시험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목임).

■ 국어(2시간)

- 시간은 문학 작품의 중요한 주제이다. 시간은 '미래를 위한 희망', '잃어버림과 슬픔', '추억의 중요성' 등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 공부했던 작품에서 어떤 이유로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역사(90분)

-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고 이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정책들은 부의 분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논하시오.

바. 세계 교육 패러다임의 시사점

위의 대입시험들과 한국의 대입은 매우 다르다. 단순히 무엇을 얼만큼 반영하는 수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패러다임이 달라서 궁극적으로 길러지는 능력도 완전히 다르게 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IB는 모두 기본적으로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을 한다. 저자의 생각, 교과서의 생각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무엇인지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을 평가에서 요구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IB는 대입시험이나 내신이나 모두 전과목 논술형과 수행평가를 하고 객관식 정답찾기는 전혀 없다. 미국의 대입은 선다형이 주를 이루기는 하나 내신은 절대적으로 논술형과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 역시 집어넣기만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각국의 대입시험을 비교 정리한 것이 아래 그림이다.

대입시험	형태	주관	채점자	산출	필터시기	내신	내신 반영	패러다임
영국 A-Level	전과목 논술형	중앙(공인기관)	교사	절대평가	입학시+재학중	논술형+수행평가	대입 미반영	꺼내는 교육
프랑스 바칼로레아	전과목 논술형	중앙(교육부+교육청)	교사	절대평가	재학중	논술형+수행평가	프레빠 입학시 반영	꺼내는 교육
독일 아비투어	전과목 논술형	주정부	교사	절대평가	재학중	논술형+수행평가	아비투어총점에 포함 반영	꺼내는 교육
미국 AP/SAT/ACT	선다형+서술형	중앙(민간기관)	기계+채점관	절대평가	입학시+재학중	논술형+수행평가	대입 반영	꺼내는 교육+집어넣는 교육
IB(국제)	전과목 논술형	중앙(IBO)	교사	절대평가	국가별로 다름	논술형+수행평가	IB총점에 포함하여 반영	꺼내는 교육
한국 수능	전과목 객관식	중앙(교육과정평가원)	기계	상대평가	입학때만	객관식+수행평가	전형별로 다름	집어넣는 교육

그림 1. 세계의 대학입학시험 비교

1)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 평가

위의 [그림 1]에서 한국만 뚜렷이 차이가 나는 점은 대입시험인 수능이 전과목 선다형 객관식 상대평가라는 점, 그리고 내신조차 객관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서구 선진국들의 교육은 모두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 패러다임인데, 한국만은 여전히 집어넣는 교육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전국의 학생들에게 길러지는 역량이 선진국 학생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다.

대입제도는 무엇을 얼만큼 반영하는지의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학생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예 교육의 방향 자체가 틀렸으면, 그 교육체제에서 성공한 집단도 성공이 아니라면, 논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위의 [그림 1]에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대학입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합당하게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견지하고 있다.

집어넣는 교육도 여전히 필요하지 않냐라고 항변할 일이 아니다. 집어넣는 교육을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는 교육에만 평가가 그치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집어넣는 교육만으로 100% 시험 보는 내용을, 저들은 25%~50%만 평가한다. 나머지 더 큰 비중이 꺼내는 능력 평가이다. 저들의 교육체제 하에서는, 학생들은 저자의 생각과 교과서의 정답만을 반복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다른 생각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고 훈련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거치고 난 후의 길러지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과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 자체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아이들조차 세계적인 경쟁력이 거의 없다는 것, 이것은 곧 나라의 미래 운명이 걸린 심각한 이슈이다.

배움은 어렵고 치열하다. 각 단계마다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그 과정을 이겨내도록 그래서 지적으로 훌쩍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학생들이 지적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저버린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 기관이 아니라 그저 보육기관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지적 성장인지 그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선진 지식을 일단 무조건 흡수하고 보자는 수용적 학습은 우리가 후진국에서 열심히 선진

국을 따라잡아야 했던 추격형 산업구조에서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있는 시점에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교육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도약할 수 없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학력고사를 치렀던 부모 세대들이 자신의 일부 경험만을 바탕으로 다시 학력고사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산업구조와 시대가 변한 시점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뒤로 후퇴하자는 것과 같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서구 선진국은 대부분 전과목에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꺼내는 교육을 하고 전과목에서 대규모 논술형 대입시험을 치러도 채점의 공정성 문제 없이 수십 년 간을 잘 운영해 왔다. 그리고 저 나라들의 교육이 앞으로도 객관식 시험으로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쯤 되면 우리의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2) 선진화된 입시와 내신으로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IB 모두 표준화된 입학시험을 대입에 반영한다. 즉 우리처럼 수능 없이도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 없다. 독일과 IB는 내신을 입시 총점에 반영하고, 미국은 내신을 별도 제출하여 비중있게 평가하며, 프랑스도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프레빠는 내신으로 뽑는 식으로 대부분 내신도 중시한다[18]. 내신 없이 수능 점수로만 가는 전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선진국들이 이처럼 입시와 내신으로 대입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공정하면서 학교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교육이 가장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시위주의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내실화는 동일한 의미가 된다. 예컨대 IB의 경우를 형태만으로 보면 학종의 비교과 없이 수능과 내신으로만 구성된 형태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소논문, 지식론철학논문, 창의체험활동 등 학종에서 추구하는 활동들이 커리큘럼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는 학종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것을 일부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IB를 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학종보다 훨씬 공정하다.

공정을 주장해서 수능으로 뽑자고 하려면 반드시 수능의 문항을 선진화해야 하는 과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타당을 주장해서 학종으로 뽑으려면 반드시 내신의 시험과 내용이 선진

18) 내신 없이 입학시험 점수만 제출하는 영국의 경우,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면접으로 대다수를 탈락시킨다.

화되면서 모든 아이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공정과 타당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공정과 타당을 모두 잡아야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든 목표는 같을 수 있다. 수능 혁신의 원리는 서구 선진국들처럼 "꺼내는 교육을 평가하는 논술형"[19]으로의 변화이고, 내신 혁신의 원리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여 기존에 비교과로 하던 활동 중 유의미한 핵심 활동을 아예 필수 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시험도 논술형+수행평가로 꺼내는 교육을 평가하게 하여 선진화하는 것이다.

수능과 내신을 선진화하는 방향은 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입의 이정표가 사교육 억제책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인지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반드시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하는데,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특정 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거나 지금처럼 사교육 비용을 더 쓸수록 공교육에서의 성적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대입의 내용적 구조는 타당하고 올바른 미래역량 교육을 반드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사교육의 존재 자체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교육 비용을 더 많이 쓸수록 공교육에서 성적이 높아지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서구 선진국들의 교육에서 사교육이 우리만큼 과열되지 않는 이유는, 내신과 수능을 포함한 그들의 평가가 매우 수업밀착형이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 정해진 교과서도 없다. 어느 교재를 선택하든,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든, 어떤 진도로 가르치든,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 있다. 즉 교사마다 다른 진도와 다른 형태로 가르치기 때문에 획일화되어 규모의 경제성이 가능한 사교육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물론 저 나라들도 사교육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교육은 우리처럼 단순반복 문제풀이 학원이 아니다. 저 중에서 가장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것이 그나마 미국의 AP-SAT(ACT)인데 이게 사교육이 활성화된 이유도 객관식 문제은행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교육도 우리와 같은 내신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국가들처럼 교사별 수업밀착형 꺼내는 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수능, 내신, 논술, 비교과를 다 따로 준비해야 하고 그것도 학교에서 해주지 않아서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IB처럼 학교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는 전과목 논술과 수행평가로 내신과 수능을 구성하고 별도로 수능과 내신과 논술을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죽어라 노력하고도 엉뚱하고 쓸모없

19) 기존의 한국의 논술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의 기대를 파악해서 써야만 하는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또다른 종류의 객관식일 뿐이라는 학생들의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매일경제, ""암기 잘하는 1등급, 창의력은 7등급", 2017.6.26.일자 보도).

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미래 대비를 할 수 있는 타당하고 공정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탈락 시점 분산

위의 [그림 1]에서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대량의 탈락 사태가 일어나는 시점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학을 쉽게 입학하지만 재학 중에 무더기로 탈락한다. 프랑스 대학 중 인기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입학생의 10%만이 졸업을 하기도 한다. 지원자가 많은 공대나 법대 같은 경우도 입학 시에는 추첨을 해서 입학시키지만 1학년 지난 후 30%~70% 만큼이나 탈락을 하기도 한다. 진급에서 탈락한 학생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다른 전공으로 바꿔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은 입학시에도 대량의 탈락이 이루어지지만 재학 중에도 상당히 탈락을 많이 시킨다. 독일과 프랑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영미 모두 입학했다고 졸업을 보장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한국은 입학시에만 대량의 탈락이 이루어지고 일단 입학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졸업은 거의 보장된다. 그래서 입학 시점에 엄청난 경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입학 때에만 대량 탈락을 시키고 재학 중에는 거의 탈락의 위험이 없는 제도보다, 탈락의 시점을 재학 중으로도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입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교육의 문제와 유사한 위기의식을 갖고 교육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본의 교육혁명

가. 일본이 공립학교에 IB 도입 결정한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주입식 획일식 교육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속에서,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을 하자마자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해 인재 재건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교육개혁이 신메이지 유신과 같은 국

가 재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월 총리실 산하에 국가교육재건실행위원회를 설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의 대해 국민들이 눈을 뜨고 그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국가교육재건을 추진한다. 그리하여 2013년 6월에 2020년 수능(센터시험) 폐지를 선언했고 동시에 IB 교육과정을 자국어로 번역, 공교육에 도입하여 교육 대개혁의 모델로 확산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문부과학성 결정이 아니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이라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일본은 교육개혁을 단순히 교육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차원의 미래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는 학습자 주도(active learning)의 꺼내는 교육(inquiry-based learning)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IB 인증 공립학교는 정부가 선언한 대로 2020년까지 200개를 만들고 그 이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IB는 연간 수천만 원씩 학비를 내는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에서만 운영되던 교육과정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경제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 교육과정 전체를 자국어로 번영하여 공교육에 무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IB 학교의 양적 확산이 아니라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본질적 개혁이다. 일본 공교육에는 20,000개의 초등학교, 10,000개의 중학교, 5,000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47개의 각 시도교육청 권역별로 IB 인증을 받은 시범학교가 설립되면 주변 학교들은 이 시범학교로부터 배우면 된다. IB 학교에서 4~5년을 근무하게 되면 베테랑 교사가 된다. 그 교사가 다른 학교로 가면 IB 교육을 퍼뜨릴 수 있고 수정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다. IB 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보다 선진적이기 때문에 한번 IB 교육에 익숙한 교사가 되면 다시 기존의 주입식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 일본의 공립학교 IB 교사들도 기존 교사가 IB 교사로 변할 수는 있어도 IB 교사가 다시 기존의 주입식 교사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본은 이처럼 주변의 학교에서 IB 시범학교 교육을 참관하고 연수를 받으면 주변의 학교도 IB 인증교가 아니더라도 IB 방식의 교육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연간 약 10,000달러 내외의 IB 가입비용을 지불하는 인증학교를 만들어도 주변 학교에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 요컨대, 일본 공교육 전체의 개혁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일본 공교육의 IB 도입은 일본 공립학교 전체를 IB 인증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여 개의 IB 인증학교를 일본 공교육 전체 개혁을 위한 모델 학교의 역할로서 전략적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다.

2017년 11월 1일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주최로 유이치로 안자이 일본학술진흥회 이사장(전 중앙교육심의회 의장)이 “일본 교육과 대입의 대개혁“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일본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육, 고교교육, 대학입시, 이렇게 세 분야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판을 바꾸는 교육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발표였다.

그 중 핵심은 대입혁명이다. 대입이 제대로 개혁되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자연히 개혁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목표가 수행, 태도, 역량인데 기존의 대입은 수행만 측정하고 태도와 역량 평가가 안됐었다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평가를 위해 수능에 논서술형 도입을 결정했다. 방법론 중 하나로 200개 공립학교에 도입되는 전과목 논서술형 시험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가 점점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IB 인증학교가 목표했던 200개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2년 대개혁 시작 당시에는 '과연 이게 실현가능할까?' 의구심으로 시작했지만, 장기적 로드맵을 먼저 제공하니 국민들 저항도 줄어들더라는 고백도 덧붙였다.

나. IB 지원 정책 및 현황

일본이 자국의 국가교육과정을 개혁하는 모델로 IB를 선택한 것은 수많은 심의와 검토 후의 결론이다. 전 세계의 우수하다는 교육과정과 평가를 모두 검토한 후 일본이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꺼내는 교육'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 부분도 있지만, IB는 특정 국가의 국가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본다. 영국의 에이레벨,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미국의 AP-SAT(ACT) 시스템 모두 해당 국가에서만 운영되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확산된 적이 없다. IB는 특정 국적이 없다는 특징도 있지만, 이 교육과정과 평가를 운영하는 공식 언어 자체가 영어, 불어, 스페인어 3개이고, 다른 언어로 일부씩 번역되어 활용되고 있던 중이었다. 즉 다양한 언어로의 확장성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IB는 과목 수가 너무 적은 영국의 에이레벨 같은 문제가 없고, 내신을 고려하지 않는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같은 문제가 없고, 객관식이 다수인 미국의 AP-SAT(ACT)의 문제가 없고, 해당 학교 교사가 1차적으로 채점하는 독일의 아비투어보다 완전히 외부인들이 교차 채점하는 IB 체제가 더 채점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

문제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그러한 대입시험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대입평가의 운영 시스템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IB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IB는 기존의 수능과 내신의 공정성과 타당성 문제를 혁신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학종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미래 담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IB 도입은 일본의 교육 대개혁의 큰 그림 중 한 전략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우선 (1) IBO(IB 본부)와 제휴를 맺고, (2) 초·중·고 전 교육과정 번역, (3) 교사연수, (4) 채점관 양성, (5) IB 인증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허용, (6) IB 교과를 국가교육과정의 교과로 인정 등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IB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일단 IB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매우 긍정적인 호응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IB 인증과정은 "IB인증관심학교➔IB인증후보학교➔IB인증완료학교"의 3단계를 거친다. IB 인증완료학교가 될 때까지 기간이 2~3년이 걸리는데, 그 전에는 IB교육이 가능한 형태가 되기 위해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수업이 바뀌고 학교의 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2018년 7월 현재 일본 내의 IB 인증완료학교가 59개교(27개 초등학교, 17 중학교, 41 고등학교)인데, 학교의 수는 59개교이나 1개교에 초/중이나 중/고 과정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하면 전체 프로그램 합산은 85개교이다. 인증이 완료된 학교 중에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립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절차가 빨라 먼저 인증이 추진된 것이고, 공립학교는 공청회, 설명회, 지역 의회의 승인, 인사배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보다 인증 신청이 늦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증 대기 중인 학교 중에 공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증을 기다리는 후보학교와 관심학교까지 포함하면 134개교가 현재 교육체제 변환에 이미 돌입했다. 인증완료학교는 명단이 공개되지만, 인증완료 이전 단계의 학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2017년 5월 문부과학성의 "IB를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방안 전문가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IB 도입의 첫째 목적은 "공교육 개혁의 롤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 목적이 그렇게 "개혁된 일본형 교육 모델을 해외에 역수출하자"는 것이다. 셋째가 "글로벌 역량의 인재개발"이고 넷째가 일시적 붐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개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쿠코 츠보야 일본 문부성 국가교육재건실행위원회 위원 및 IB 일본 대사는 일본 교육대개혁에 IB가 미친 영향은 메이지유신을 가능하게 한 흑선의 역할이라고 비유했다.

> "그간 일본 교육에 대한 개혁 요구가 적지 않게 있어 왔지만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IB가 도입되면서 개혁 방법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IB는 일본 교육 대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B는 일본 교육 대개혁의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일본에서는 IB를 19세기 개항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이라고 봅니다. 흑선은 일본에서 외부 충격을 기회로 삼아 내부 혁신을 성공시킨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이 흑선을 끌고 도쿄만에 나타나서 개항을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선이 오지 않았다면 일본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간 내에 개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IB는 현 일본 교육의 대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흑선입니다."
>
> - 이쿠코 츠보야 일본 국가교육재건실행위원회 위원 및 IB 일본 대사

다. 시사점

2017년 3월 29~3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 교육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전세계 명문대들이 선호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이하 IB)의 세계학회를 일본에서 개최한 것이다. 33개국 1500여명이 참여했다. 일개 교육과정 학회임에도 왕실에서 나와서 축사를 했다. 아키시노 왕자가 미래세대 역량과 전인적 교육을 구현하는 세계적 수준의 IB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와 일본에서의 도입에 대한 기대를 강조했고, 문부과학성에서는 IB의 공교육 도입을 200개 학교를 넘어 지속적으로 확산할 것을 선언했으며, 주최 지역 도지사는 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인재 양성을 위해 IB 교육과정이 일본 국가교육혁명의 초석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일본의 문부성 관계자들은 연간 수천만원의 학비를 내야 하는 국제학교에서나 받을 수 있었던 이 우수한 교육과정을 국가가 나서서 공립학교 학생들이 무료로 교육받게 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경제격차가 교육격차로 귀결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신념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나라의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절박함이 교육혁명의 서막을 올리게 했다 한다.

기조강연을 한 노리코 아라이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이 동경대 입시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로 널리 알려진 수학자이다. 그녀는 2010년에 컴퓨터가 인간의 직업을 빼앗아 갈 것임을 예언하는 책을 냈는데, 출간 직후 서점에서 자신의 책이 비즈니스 섹션이나 IT 섹션이 아닌, SF 섹션에 있는 걸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쓰나미는 몰려오는데 그 엄연한 '현실'을 'SF'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걱정돼서, 이들을 자각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동경대 로봇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다.

처음부터 동경대 입시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경각심과 인공지능에 백전백패할 교육을 혁명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프로젝트 시작 후 해마다 로봇의 합격 대학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었단다. 이제는 향후 10년~20년 이내에 인공지능 로봇이 동경대, 북경대, 아이비리그 등 세계적인 명문대에 합격하겠느냐는 질문에 일본 국민들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할 만큼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아라이 교수는 얼마 전 로봇이 일본 전체 대입생들의 상위 25%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멈췄다. 이미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 그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교육이 길러야 하는 능력은 지금은 없는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자면 '결과'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집어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 '문제해결력'이 중심인 교육에서 '문제발굴력'이 중심인 교육으로, 그리하여 '지식 소비자'가 아닌 '지식 생산자'를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미처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상상과 통찰을 해내며 인공지능과 공존해 나가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일본의 교육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구한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할 때 젊은이들을 뽑아 선진 문물을 배워오게 했고, 그렇게 시대를 읽는 눈으로 근대화를 우리보다 먼저 했다.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늦게" 읽어 나라를 빼앗겨야 했던 역사의 어리석음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3. 한국 교육혁신을 위한 IB 한국어화 및 공교육에 시범도입

가. IB란 무엇인가

IB는 1968년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등 국제 기구 주재원, 외교관 자녀들이나 해외 주재 상사 자녀들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런 아이들은 어느 한 국가에서 만든 국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기 어렵다. IB는 그들에게 어느 국가에서도 유용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민간 비영리 교육 기관에서 개발된 교육 과정 및 대입 시험 체제다.

비영리 교육 재단인 IB본부(IBO;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IB를 총괄하고 있는데, 스위스에 법적 본부가 있고, 네덜란드에 실무 본부가, 영국에 채점 센터가 있다. 아시아태평양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다. IB본부IB본부는 전 세계를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권역(IBAEM),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권역(IBAP), 남북 아메리카 권역(IBA)의 세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2월 현재 전 세계 153개국 이상의 4,964개서 6,453개의 IB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북미 쪽이 압도적으로 60% 가량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권역에 많으며,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서도 최근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IB본부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학생 평가, 교사들의 연수와 전문성 개발, 개별 학교에 대한 인증과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년 위 세 권역별로 전체 회원 학교 구성원들 간의 글로벌 컨퍼런스를 열어 교육 철학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관한 정보를 나눈다. 공식적인 교사 연수를 전 세계 곳곳에서 연중 내내 수시로 실시해서 소속 교사들의 수업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IB에는 총 4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초등학교 프로그램(PYP: Primary Years Program), 중학교 프로그램(MYP: Middle Years Program), 고등학교 과정인 디플로마 프로그램(DP: Diploma Program), 직업 교육 프로그램(Carrer-related Program)이 그것이다. 이 중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 가장 밀도 있게 운영되어 온, 1968년부터 역사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중학교 프로그램은 1994년에,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1997년에, 직업 학교 프로그램은 2012년에 개발되었다. 전 세계에서 2017년에 고등학교 과정인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시험이 치러진 수는 671,874건이다. IB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IB 인재상(Learner Profile)

Inquirers	탐구적 질문하는 사람
Thinkers	생각하는 사람
Principled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
Caring	남을 배려하는 사람
Reflective	성찰하는 사람
Knowledgeable	필요한 식견을 갖춘 사람
Communicators	소통할 줄 아는 사람
Open-minded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Balanced	균형을 갖춘 사람
Risk-takers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사람

나. 한국어화를 추진하는 교육청들

최근 몇몇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 패러다임적 혁신을 추진해 왔다. 시작은 2017년 여름 수업/평가 혁신 방안으로 IB를 공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는 서울시 교육청의 연구 제안부터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IB 프로젝트가 진행되자 2017년 하반기에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아예 IB과정를 한국어화해서 국내에 도입하는 절차를 연구하자고 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18년 1월 IB를 한국어화하여 공교육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자는 첫 공문을 IB본부에 보냈다. 2018년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IB 글로벌 컨퍼런스에는 제주 교육청, 충남 교육청, 대구 교육청에서 30명의 대표단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참여했다. 이때 제주 교육감, 충남 교육감을 비롯한 한국 교육청 대표단이 IB본부 회장단과 공식 회담을 갖고 IB 한국어화를 정식 요청했다.

IB본부는 처음에는 한국어화에 큰 관심이 없었다. 2018년 5월 하순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 IB 한국어화 개발 의제가 상정되었을 때만 해도 본부의 이사들은 대체로 무관심했다. 그러던 이들이 한국어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데에는 재미난 배경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연일 유럽 언론에도 등장하자 '작금의 세계 평화는 한반도에서 시작하지 않느냐, 이런 시기에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는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씨앗을 한반도에 심는다면 이는 IB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아니겠느냐'는 설득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IB본부와 교육청들은 2018년 7월~9월 동안 한국어 IB의 공교육 시범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공립학교에 IB를 도입할 인프라를 분석했고, 교원들 현황을 검토했으며, 주요대학들 입학처에서 IB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IB 시범도입의 긍정적 가능성을 상호 확인한 타당성 검토 결과, 2018년 9월 26일 제주 교육감과 대구 교육감은 싱가포르에서 쿠마리 IB본부 회장과 IB 한국어화의 총론을 합의하는 회담을 했다. 이후 교육청들과 IB본부는 어떤 과목부터 한국어화할지, 교원 연수는 어떻게 할지, 채점관 양성은 어떻게 할지 등 각론을 협상했다. 국제계약이기 때문에 협력각서(MOC)의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재정 계획에 대한 교육청 및 지역의회의 협의를 거쳐 곧 IB 한국어화에 관한 협력각서(MOC)가 체결될 예정이다. 한국어화된 IB 도입 관련 협력각서의 첫 유효기간은 일단 5년이고 이후 갱신할 수 있다. 1차년도부터 참여하는 교육청은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중간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교육청들이 2차년도 혹은 3차년도 협약부터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당장 전면 도입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일부 학교에만 시범 도입한다.

IB 한국어화는 단순히 시험 문제를 번역하는 차원이 아니다. IB 대입 시험을 한글로 치르고 엄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IB 수업 교원 연수를 하고, 영어판 채점과 동일한 수준의 한글 채점이 가능한 우리 채점관을 양성하게 된다. 그를 통해 시범 학교 이외에 일반 학교 교사들도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의 평가와 수업을 접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 IB의 초.중학교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이 아니라 프레임워크여서 우리 국가 교육 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도 가능하다. 2009년부터 우리의 '초·중등 교육 과정 행정 규칙'에 고등학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 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경기외고가 도입한 IB 영문판 과정이 2010년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 국제학교에도 IB 과정이 있는데 이 역시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의 IB 시범 도입 추진 현황 요약]

2017. 6. 서울시교육청의 IB 정책 연구 최초 의뢰.
2017. 12. 제주도교육청 IB 한국어화 추진 및 시범 학교 도입 공개 선언.

2018. 1. 제주도교육청이 IB본부에 IB 한국어화 협의 요청 공문 보냄.
2018. 2. 충남도교육청 IB 정책 연구 시작.
2018. 3. 싱가포르 IB 글로벌 컨퍼런스에 한국 교육청 등에서 자발적으로 30명의 대표단이 참석.
2018. 3. 26. 싱가포르 회담: 한국대표단(제주 교육감, 충남 교육감, 대구 교육청, 경북대 사범대학장, 서로 사전 협의 없이 자발적으로 모임.)이 IB본부 회장단과 공식 회담을 갖고 IB의 한국어화 개발을 공식 요청.
2018. 5. 26. IB본부 이사회에 IB 한국어화 의제 상정.
2018. 7. ~ 9. IB본부의 한국어화 타당성 검토 작업 착수.
2018. 9. 26. 싱가포르 회담: IB본부 회장 vs 제주 교육감 및 대구 교육감의 한국어화 총론 합의.
2018. 10~12. IB본부와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 위한 세부 조건 협상.
2018. 12. 제주 교육청, 대구 교육청의 IB 예산 지역 의회 승인.
2019. 1~3. 협력각서 법적 검토 및 각론 협의.
2019. 4. 협력각서 체결(예상).
2019. 5~. 영어/한국어 가능 교사들을 먼저 연수 강사로 집중 훈련

IB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교육에 IB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수능과 내신이 선진화되어 공정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타당성을 갖추는 가칭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체제를,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현대자동차 설립 초기에 벤츠를 들여와 해체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했듯,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체제를 설계, 개발하려면 샘플 사례를 온전히 들여와 해체하고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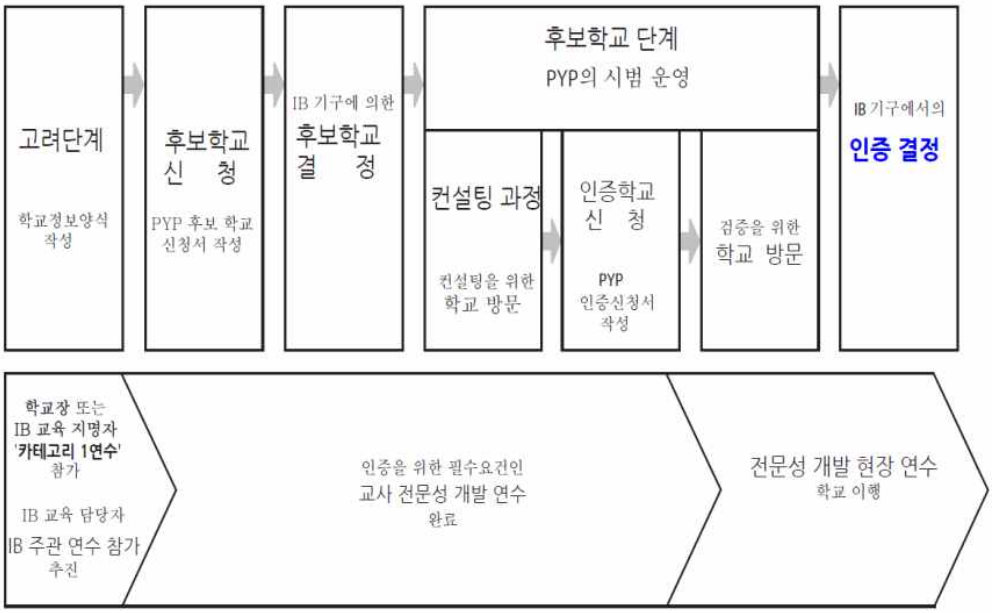
도입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기존의 IB 학교는 국내 공립 학교에 한국어로 적용된 적이 없고 국제학교나 사립 학교에 영어판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의 채용과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학생에게 부담하게 해서 학비가 비싼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공립 공교육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미 공적 자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교사 인건비나 연수 비용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학생에게 부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연간 1만 달러 내외의 멤버십 비용이나 처음에 인증을 받기 위해 일회적으로 소용되는 비용 역시

기존의 혁신학교, 연구학교, 과학중점학교 등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학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수준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므로 학생에게 추가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다. 즉 IB를 한국어화하여 공립학교에 도입한다고 해서 학생의 부담이 늘어날 일은 없다.

다. IB 학교가 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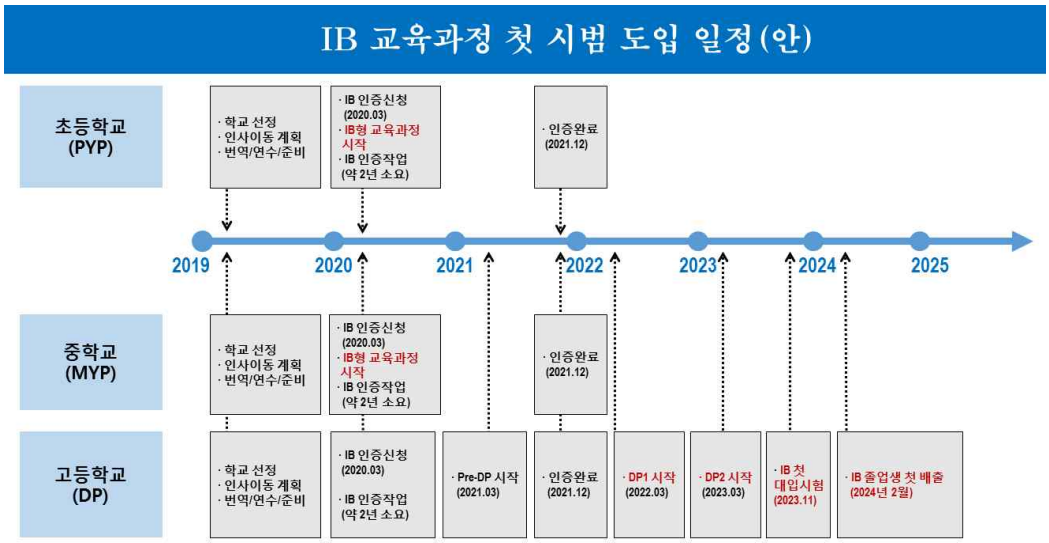
IB본부에서 인증받은 IB 학교가 되려면 관심 학교→후보 학교→인증 학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 1.5년~2.5년이 소요된다. 우선 교장, 교감 등이 먼저 연수를 받은 뒤 IB의 철학을 이해하고 IB 학교 인증을 지원하겠다는 판단이 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먼저 관심학교 신청을 한 이후 안내되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IB 수업 시점은 학교급 별로 다르다. 초, 중학교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인증 완료 전에도 IB형 수업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인증이 완료되어야만 IB 수업 시작이 가능하다. 또한 초, 중학교는 인증 완료 전에는 전체 학생이 아닌 일부 학년 또는 학생만 IB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인증 완료 후에는 한 학교 전체가 IB 교육을 해야 한다.

반면 고등학교는 한 학교 내에서 일부만 IB 교육 가능하다. 즉 한 학교에서 학생에 따라 IB반과 수능반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등학교의 IB 프로그램은 2년 과정이므로 우리 학제의 고1에는 IB에 없는 교과(기술 가정 등)를 포함하여 필요한 교육 과정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2019년에 바로 인증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교육청들에서 IB본부와 추진하고 있는 타임라인은 2023년 11월에 한국어화된 IB의 첫 대입 시험을 치르는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즉 2024년 대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첫 수험생의 숫자는 150명 정도로 매우 적을 것이나, 향후 수험생 수가 500명 이상으로 확대되면 한국어화할 과목을 확대하고 교원 및 채점관 양성도 확대하게 된다. 다음 그림이 초중고 학교급별로 인증을 신청하고 수업을 시작하며 대입 시험까지 치르게 되는 타임라인의 예시이다. 편의상 2020년에 인증을 신청하는 것으로 상정했는데 인증 신청이 더 늦어지면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증 완료 시기도 늦어지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라. 한국어화 IB 도입의 의미

한국어화된 IB가 공교육에 도입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시험 문제를 번역하는 일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초기에 대대적인 번역 작업은 수반되어야 한다. 번역 작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교사용 안내서이다. 교육 과정, 교수법, 평가 기준, 대입 시험 가이드 등에 대한 번역이 일차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IB는 초•중•고 전체가 정해진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 번역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교과서 자유 발행제에 의해서 참고서 격으로 나온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번역할 수는 있을지라도 IB본부와 제휴해 번역하는 작업에는 교과서 번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도 교과서 번역이 없었고 기존의 국정, 검인정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각종 교과서들은 모두 학습의 소재, 자료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IB의 한국어화는 단순히 온갖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입 시험과 내신 시험 모두를 한국어로 치르고 엄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문제의 내용은 어느 언어로 이루어져도 동일하다. 답안 역시 어느 언어도 작성되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채점되어야 한다. IB의 한국어화는 영어판 IB와 동일한 수준의 한국어판 채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인 채점관을 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IB 공식 연수가 진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먼저 IB 교원연수가 한국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정예 요원을 먼저 양성하게 된다. IB 교육은 단순히 교수법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통역을 통해서는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IBO와 교육청들은 초기에 국내 교사들 중 교과별로 영어 가능한 교원들을 차출하여 수개월에 걸쳐 집중 훈련하여 정예요원으로 양성하기로 합의했다. 단계별로 여러 집중 연수에 투입되어 양성과정 이수가 완료되어 연수강사로서의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국내 일반 교사들을 위한 연수에 투입된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채점관 후보를 선발하여 추가 훈련을 더 받고 자격이 되면 채점관으로 활동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IB 본부는 초기에 정예요원으로 양성된 교과별 교사들이 채점관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실제 영어권 대입 시험의 채점에 투입할 계획이다. 영어권 채점에서 무사히 검증된 채점관들로 하여금 2023년 11월부터 진행되는 한국어판 대입 시험 채점에 투입되도록 하여 영어판 IB와 한국어판 IB의 채점의 질을 균등하게 확보하겠다는 것이 IB의 방침이다.

한국어화된 IB의 시범 도입은 무엇보다 시범 학교 이외의 교사와 학부모에게 여러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IB 시범 학교에서 ‘한국어화된 IB’로 수업하기

시작하면, 시범 학교 이외의 일반 학교 교사들도 새로운 종류의 평가, 수업, 교수법을 접할 연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시범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도, 같은 공립 학교를 다니는 옆집 아이가 다른 종류의 숙제를 하고 다른 종류의 시험을 보는데도 국내 대학에 잘 입학할 수 있다는 사례를 지켜보면, 객관식 상대 평가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수능과 내신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패러다임적으로 혁명할 수 있는 씨앗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IB 시범학교 도입의 과제

IB에 대한 대다수의 질문들은 IB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피상적인 단면만을 보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IB에 대해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정확한 팩트를 알리고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화된 IB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공교육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별로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몇 학교 수준의 시범도입을 말한다. 교육청에서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소요 예산을 혁신학교나 연구학교 지원처럼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생이나 교사가 예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이하에서는 IB에 대한 FAQ를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1) 귀족교육? 엘리트교육?

귀족교육이라는 인식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공산당만 반대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궁극적인 방향은 동감하나 귀족교육, 엘리트교육 같다며 공교육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쿠코 츠보야 IB 대사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미국 플로리다의 한 우범지역 공립학교에 IB가 도입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공립학교는 폭력, 마약, 임신/낙태 등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다고 한다. 학생들의 학업의욕이 전무 하다시피 한 건 물론이다. 그런데 그 학교에 IB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 놀랍게도 청소년 범죄율과 임신/낙태 비율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한다. 게다가 부모도 학생도 대학진학은 원하지 않던 지역이었는데, IB 도입 후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 공부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더란다. 성적 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과정이기에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던 청소년들도 스스로 눈을 뜨고 깨어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편 고등학교 과정인 IBDP는 만점이 45점인데 약 40점 이상이면 옥스퍼드 하버드 등 세계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준이 된다. 경기외고나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 평균이 대략 37점 정도인데 이것은 입학부터 선발된 집단이라 대단히 높은 점수인 것으로 전세계 평균은 약 29점이다. 즉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다. IB는 시대적 역량을 기르는 또다른 종류의 수월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엘리트 교육은 아니다.

2) 또 다른 탑다운 통제인가?

IB는 탑다운으로 실현 불가하다. 철저히 교사 중심,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IB를 도입하겠다는 차원은 학교를 지정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IB에 관한 설명을 통해 안내를 충분히 들은 후 하고 싶어하는 교장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원하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설령 교사들이나 학교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IB 도입 허용은 모든 학교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교를 방해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다만, IB처럼 꺼내는 교육은 사실상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제도이다. ’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호되기 전까지는 아예 그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 교사의 교육권‘과 ’ 학생의 학습권‘도 법과 제도로 보호되기 전인 현재는 사실상 그 개념조차 미비하다. 우리 교육에서 사실상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되어 있다는 것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IB에서는 교사가 목적하는 역량을 기를 수만 있다면 어떤 교재를 얼마 동안의 기간에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지 교과서와 진도와 평가의 자율권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내용과 진도와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이 박탈되어 있는 우리 교육과 매우 다르다. 학생들도 저자의 생각, 교과서의 정답이 아닌 즉 자신만의 관점과 논리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스스로의 생각이 아닌 정해진 정답만을 찾아야 하는 우리 교육과 매우 다르다. 즉 IB는 교사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꺼내는 교육 패러다임을 평가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학습권리를, ’제도적 환경으로’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개혁하는데 외국의 제도를 단순히 사오자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전 과목 논서술 대입 시험을 공교육에서 채점의 공정성 문제 없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경험해 보면 우리만의 맥락에서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일단 롤모델로 몇몇만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자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훌륭한 기여를 해왔지만 대입의 문제, 학력논란 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 학교에서는 제도적 환경적 제약으로 서술형 평가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자 IB를 전략적 도입하자는 것이다.

IB 본부에서는 꺼내는 교육을 막는 제도가 발목을 잡는 한 IB학교로 인증을 해주지 않는다. 즉 IB 인증학교가 공교육에 도입된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을 막는 제도 전체를 다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건 단지 무수한 공문, 이원목적분류표 등의 문제만이 아니다. 교육을 관리감독한다는 명분하에 학교를 옥죄고 사실상 교육을 방해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거버넌스 구조까지 바꿔야 하는 문제이다. 공교육에서 IB인증학교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꺼이 교육당국의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의지를 갖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IB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난공불락의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할 참고사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3) 한꺼번에 도입보다 점진적 도입이어야 하지 않나?

IB 도입 전략은 '점진적'일 수 있지만 한 학생이 경험하는 한 학교 체제 내에서는 반드시 '한꺼번에'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집어넣는 패러다임에서 꺼내는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교육혁명은 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전국 모든 학교의 개념으로 보면 몇몇 학교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바꿔야 하겠지만, 시범학교로 지정된 개별 학교 내에서는 '한꺼번에' 바뀌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IB 인증학교가 된 학교들은 기존 커리큘럼의 절반 정도만 바뀐다는 등의 개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한꺼번에' 다 바뀌어야 한다. 한 교육과정 내에서 혹은 한 수업 내에서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한다. 한꺼번에 바뀌고 IB 인증학교가 된 경기외고의 사례를 봐도 아이들은 다들 바로 IB 교육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한 아이에게 도입할 때 IB는 평가의 일부분 도입이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도입해야 성공한다. IB 교육과정만 도입하고 대학입시가 안 바뀌거나, IB 논서술형 평가제도만 도입하고 교

육과정을 기존 주입식으로 하는 등 부분만 도입하면 마치 바퀴 하나가 없거나 엔진이 빠진 오토바이 구입하듯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예컨대, IB를 기존 공교육에 50%만 도입한다거나, 수능에 30%를 출제한다거나, 공교육 학생들이 주 1-2회씩 수업하는 영재프로그램에 도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IB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셈일 뿐만 아니라 IB에서 얻고자 하는 교육효과도 얻지 못한다. 도입 후 정착되어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변형된 한국형 교육과정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일단 처음에는 반드시 전부를 통으로 도입해야 한다.

4) 사교육이 폭발할까?

IB도 사교육을 물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최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사교육을 한다. IB는 사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안 한다. 잘하는 애들도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사교육 안 하고 부족한 과목을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수업의 보완, 결손, 이것에 대한 보충, 이 개념으로 사교육을 접근을 하지, 잘 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무한 소모적인 경쟁은 안 한다. 그게 성적에 직결되지 않는 평가구조이기 때문이다.

사교육계는 학교마다 교육과정, 진도, 시험 방식이 획일화되지 않고 다르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고 성토하게 될 것이다. 한 문제 가지고 몇 주씩 심층사고와 퇴고를 거듭한 사고력 훈련을 하게 되면 문제집을 수십 권씩 풀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학습지 시장이 고사한다. 문제풀이에 집중하던 학원도 설 곳을 잃게 된다. 게다가 학교 내신 평가항목에 “자신이 직접 한 정도“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평가기준이 있다. 학생의 평소 수업시간 활동과 달리 외부에서 해온 흔적이 확인되면 즉시 그 분야 최하점수를 받는다. 물론 그럼에도 한국의 사교육은 여전히 살아남을 거라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평가 기준이라면 적어도 학원에서조차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하지 않겠는가?

5) 채점의 공정성 문제는?

고등학교는 대입 시험이 있어서 수능 같은 외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외부로 가서 전체 채점을 하는데, 그 채점관을 양성하는 방법이 주로 현직 교사 중에서 채점관을 양성한다. IB를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 중에서 신청을 하면 채점 테스트를 해서 통과하면 IB 채점관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이 채점관을 자국민으로 양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주 국제학교나 경기외

고나 IB의 최종 대입 시험을 보면 모든 답안지가 영국에 있는 채점센터로 가서 거기서 채점관에게 배포하여 채점했는데, 일본은 자국민 중에서 양성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상 매우 실질적인 교사 연수의 효과도 얻고 있다.

실제로 채점을 하는 방식의 한 예를 살펴보면, 논술형 답안지 약 100개 정도가 한 채점관에게 할당이 되면 보통 10개의 답안지가 포함된 한 세트씩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채점관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답안지를 읽고 채점을 하는데, 10개씩의 한 세트 중에 이미 기채점된 스파이 답안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 이 스파이 답안지는 기채점된 것이기 때문에 채점관의 채점결과가 적절한지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채점관도 이러한 기채점된 답안지가 10개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답안지를 신중하게 채점해야만 한다. 만약 기채점된 스파이 답안지가 채점이 잘못됐다면 그 10개의 세트 전체를 다시 채점한다. 대부분의 채점은 교차 채점을 한다. 다른 채점관의 채점 결과와 점수가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또다시 재채점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처럼 점수가 학생에게 통지된 이후에도 학생이 채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채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재채점의 경우 점수가 떨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은 재채점을 함부로 신청하지 않고 신중을 기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채점의 일관성을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년 동안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없게끔 공신력 있게 신뢰를 받고 있다.

IB 교육을 시작하고 지속가능하려면 무엇보다 IB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과 IB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자를 육성관리 해야 한다. IBO에서는 IB 학교의 교원을 위해 Category 1, 2, 3 단계별로 각각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계의 같은 교과 교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여 그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게 한다.

6) 혁신학교와 또다른 무엇인가?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IB의 평가체제를 보면 혁신학교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언급을 종종 한다. 성공적인 혁신학교들에서 볼 수 있는 수업과 평가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혁신학교・혁신교육 및 최근 교육과정・평가지침에서 강조되어온 역량중심 교육, 수행평가 확대, 과정중심 평가로의 이행 등이 IB에 모두 담겨 있다. 그러나 아직 IB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혁신학교, 과정중심평가, 객관식 폐

지 등의 새로운 평가체제 및 교육과정을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또다시 새로운 무언가가 더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IB 는 혁신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학교를 세계적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강화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학교가 개별 사례를 넘어 구체적 모델로 정립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의 혁신학교는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아무리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결국에는 다른 일반교와 동일한 입시체제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시에 가까운 학년으로 갈수록 혁신학교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하여 입시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혁신고등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점, 공신력 있는 학력 검증 연구결과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아 여전히 학력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 논란 때문에 여전히 일관된 채점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연수되지 않고 교사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잘 하는 혁신학교는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게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IB 이다.

그렇기 때문에 IB 시범학교를 도입하겠다는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혁신학교로 이미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IB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요컨대 IB는 혁신학교와 전혀 다른 무엇이라기보다 현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국제적 수준으로 완성하는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존의 ‘발전형’ 과도기적 혁신학교에 IB를 도입하여 ‘완성형’ 혁신학교로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다.

OECD 36개국 중 수능과 내신이 둘 다 모두 객관식 상대평가인 나라는 딱 두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 일본이 지금 교육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만 남게 된다. 어느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지는 시점이다. 사람은 평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시험이 집어 넣어진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서 꺼내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면, 공부법, 교수법, 교육과정, 교육제도가 모두 바뀐다. 시험혁명은 하나를 건드려서 다른 모든 것을 도미노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킹핀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시작은 평가혁명부터다.

마. IB를 넘어 KB(가칭)로 나아가야

IB 시범도입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교육에의 IB 전면도입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수능과 내신이 선진화되어 공정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타당성을 갖추는 가칭 KB(한국형 바칼로레아)[20]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현대자동차 설립 초기에 자동차를 처음 만들려면 벤츠를 들여와 해체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체제를 설계 개발하려면 예시 사례를 온전히 들여와 해체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시범 도입을 하자는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 교육은 2015교육과정, 과정중심평가,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등의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하면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IB는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쓰나미 속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선진화된 교육과정이다. 이런 이유로 IB는 우리나라에서나 일본에서나 연간 수천만 원씩 학비를 내야만 하는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에서 주로 운영되어 오던 교육과정이었다. 이런 종류의 교육을 공교육에 무상으로 시범도입하겠다는 것은 경제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진정으로 해소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창의 융합 인재, 4차 산업혁명 역량교육,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객관식 정답찾기 교육은 반드시 탈피해야 하는데, 문제는 논서술형 시험에서의 채점의 공정성 논란을 극복할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초기에 논서술형 채점 공정성에 불안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처럼 논서술형 채점의 신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공신력 있는 채점 인증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불가피하다. 이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즉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충분히 신뢰롭게 개발할 때까지 초기에 일시적으로 히딩크를 영입하는 개념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채점 체계를 도입하여 배워보자는 것이다. IB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시의 부풀리기 문제, 학종의 부작용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게다가 이것은 교사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교사의 평가권을 포함하여 교사가 교육내용, 진도, 평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권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저자의 생각, 교과서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20) '바칼로레아'라는 이름은 여러 곳에서 쓰인다. 이 글에서 논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외에, 우리에게 그간 널리 알려져 왔단 프랑스 바칼로레아(FB)도 있고, 유러피안 바칼로레아(EB), 잉글리쉬 바칼로레아, 스패니쉬 바칼로레아, 튀니지 바칼로레아, 루마니아 바칼로레아 등이 있다. 모두 서로 전혀 다른 시험이다.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IB의 공교육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시작이다.

참고문헌

1) 문부과학성(2018). 문부과학성 정보발신: IB에 대해.
2) 유이치로 안자이 (2017). **일본의 교육 및 대입제도 대개혁: 현황과 미래전망**.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자료집 (2017.11.).
3) 이기정 외 (2018). **입시의 몰락**. 창비교육.
4) 이쿠코 츠보야 (2018). **IB는 일본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흑선입니다.** 월간좋은교사(2018.2.)
5) 이쿠코 츠보야 (2017). **IB 교육과정과 평가: 일본의 사례**.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2017.12.).
6) 이혜정 외 (2018). **IB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의 제주교육 적용방안 연구.** 제주도교육청 위탁연구 최종보고서.
7) 이혜정 외 (2018). **비판적 창의적 역량을 위한 평가체제 혁신방안: IB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위탁연구 최종보고서.
8) 이혜정 (2018).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고 있는가**. 매일경제신문. 2018.9.14.칼럼
9) 이혜정 (2018). **[인터뷰] 수능과 학종 프레임 벗어난 교육혁신 시급.** 2018.9.20.
10) 이혜정 (2018). **[신년인터뷰]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 독서신문. 2018.1.4.
11) 이혜정 (2017). **교육이 '사육'에서 벗어나려면.** 매일경제신문. 2017.9.28.칼럼
12) 이혜정 (2017). **교육평가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국회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자료집 (2017.9.).
13) 이혜정 (2017). **교육혁명, 시험혁명서 시작해야.** 매일경제신문. 2017.6.1.칼럼
14) 이혜정 (2017). **일본은 교육혁명 시작했는데 한국은 구한말인가.** 매일경제신문. 2017.4.27.칼럼
15) 이혜정 (2017). **대한민국의 시험.** 다산북스.
16) "**암기 잘하는 내신 1등급, 창의력은 7등급**" 매일경제 2017.6.26. 1면
17) "**주입식 교육 강요당하는 학생들, 4차산업혁명 낙오 우려**" 매일경제 2017.6.26. 4면
18) "**정보수집/의사결정은 AI 몫, 문제발굴 능력 키워줘야**" 매일경제 2017.6.26. 5면
19) 한국IB교육연구회 http://www.ibkorea.kr

제1토론

한국 교육혁신의 가장 적절한 롤모델은 IB

우종수(DIGIST 이사장, 전)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성장동력의 부재이다. 여기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 나라는 점차 빈곤해지고 허약한 2,3류 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두 문제의 근본원인을 깊이 들여다 보면 교육의 문제가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교육으로는 자녀들이 계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좌절감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급격한 고령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 여겨진다.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상대평가에 의한 살인적인 대학입시와 취업전쟁에 허덕이는 미래의 세대로부터 성장동력을 기대하는 것는 너무 큰 욕심 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근본 문제는 지금의 교육이며 지금부터라도 이를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는 더 이상 우리 앞에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상대평가라는 현재의 가르치고, 평가하는 방식을 혁신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 하면 학습자 주도로 지식을 만들어 내는 소위 꺼내는 교육과 주관식 절대 평가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학습자 주도의 꺼내는 방식의 교육은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꾸로 교육(Flip Learning), 프로젝트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 연구기반교육(Research & Education, R&E), 독서중심 교육, 하부루타교육, 하크네스 교육으로부터 혁신학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시도 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들은

우리의 교육을 혁신시키지 못한 채 여러 학교에 장식품처럼 파편화되어 있던지 한 학교에 여러 가지 방식이 짜 집기 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같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단편적인 학습분야에 효과적인 방법을 넘어 학습분야 전반에 체계화된 교육방식으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객관식 상대평가의 대학입시에 교육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평가방식 역시 공정하다는 미명아래 가장 전근대적인 객관식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고착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이고 단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정량화된 수치로만 평가한다는 것이 공정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객관식 상대평가라는 한가지 잣대로 평가하여 다양한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한 젊은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내모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평가는 아니다. 사실 평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은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또는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가 아니라 신뢰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평가를 현재의 방식으로부터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지만 결국 원점으로 회귀하고 마는 것은 평가 자와 평가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IB는 학생 주도의 꺼내는 교육 면에 볼 때 다른 어떤 방식보다 학습분야 전반이 균형 있게 짜여져 있고, 방식 또한 체계화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AP, 독일의 아비투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영국의 에이 레벨 등 선진국의 교육제도 역시 IB 못지 않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IB는 특정한 국가를 위하기 보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교육제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평가방식 역시 세계 어느 나라에 내어 놓더라도 신뢰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IB의 평가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IB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평가에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능력 있는 채점관을 양성, 선발하고, 채점과정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체크와 견제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하는 동시에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다.

IB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상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 평가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더우기 이를 효과적으로 정착,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IB는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교육혁신의 롤 모델**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IB라는 교육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율과 책임"** 그리고 **"다양성"** 이란 가치관이 존중되지 않으면 이를 통한 교육혁신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획일주의, 단기성과주의, 권위와 형식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사교육이 횡행하는 금수저 교육이라든지, 사대주의 교육이라든지 하는 등 교육의 본질과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으로 교육은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의 평가와 선발에 대한 권한을 대학 자율로 돌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대학이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다양성이 더 더욱 요구되는 미래 세대를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이며 권위적인 방법으로는 제대로 평가하기가 점점 힘들어 질 수 밖에는 없다. 평가와 선발은 대학에 맡기고 대신 정부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주관식 절대평가 방식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인적 인프라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국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방향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본다.

IB를 도입하면 일류병이 도지고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SKY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상, 없어질 직업과 지식을 위해 왜 그리 죽도록 돈들이고 공부했는지를 의아해 하는 세상이 조만간에 올 것이다. 일류병이니 인기학과이니 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지루하게 반복하는 추억의 술자리 대사일 뿐 젊은 세대의 미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 "사기 당하는 이유는 사기꾼 때문이 아니라 빨리 많이 돈을 벌려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처럼 **사교육은 교육정책이나 입시제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녀는 남보다 쉽게 오랜 동안 권력과 재물을 갖게 하고 싶다는 개인적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은 정도의 문제지 항상 있어 왔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였던 6,70년대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고대 로마에서도 자녀를 그리스로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리스인 노예를 가정교사를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신분상승이나 계층이동이 가능한 열린 사회에서는 남이 받는 사교육에 대해서 보다 내가 얼마큼 열심하느냐에 관심을 더 둔다. 사교육의 문제는 사회가 폐쇄화 되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생기는 병리적인 현상이지 교육정책의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사교육을 없애려고 그렇게 많은 교육정책을 시행을 했어도 사교육은 오히려 끊임없이 증가해 온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고 생각한다. 자율과 책임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IB교육은 사교육을 오히려 줄이고 관심 밖의 문제로 만들 수 있다. IB의 교육과 평가 방식은 사교육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있더라도 제대로 적응하고 따라가기 위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 생각한다.

IB교육은 수월성교육이라는 인식은 왜곡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만 의도적으로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육성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IB교육은 학생을 성적으로 선발한다든지 특정 목적을 위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이라는 관점은 전혀 맞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나 국제학교 등 특수한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고 또 아직은 영어 IB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자격이나 선발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 같은 오해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학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더 부추기는 것 같다. 하지만 국가 공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정착시킨다면 수월성 교육이라는 오해의 여지는 없어질 것이라 여겨진다. 공교육이 정착되기 전에는 공립이든 사학이든 먼저 도입을 하는 경우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는 경우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며 잘 정착되면 불 필요하게 된다. 아무 노력 없이 공짜로 되는 것은 없다는 아주 간단한 진실부터 이해해야 할 것이다.

IB교육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방법이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사대주의에 젖어 이제는 교육마저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가? 이런 의견을 접하게 되면 문득 구한말 쇄국정책, 중국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 북한의 주체사상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중첩되어 떠오른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에게도 자체 개발해서 시도했던 혁신적 교육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이라 50년간 체계적으로 국제적 신뢰를 쌓으며 발전해 온 IB교육에 비하면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고 멀리 보는 것” 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인으로 성장은 드는 시간과 돈 때문에 불가능해 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또 그러는 동안 거인은 더 멀리 가버리고 만다. 우리에게 적합하면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면 하루 빨리 도입하여 우리 것으로 체화시키고 이를 발전시켜 세계를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거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 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B교육의 필요성을 설득할 때마다 접하게 되는 반응은 이제까지 하던 교육을 무시하고 일거에 모두 IB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항상 Top Down식이며 권위주의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정책에 익숙해져 있어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가르치고 평가를 할 선생님들도 육성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지원해야 할 Staff 기능도 있어야 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려야 정착되는 것이지 좋다고 해서 단번에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IB교육을 도입하면 바로 다음날 대학입시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육시스템이 여기에 맞게 변해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미리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과거 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한 학교의 한 반이든 두 반이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IB교육을 시도하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기존의 교육제도를 IB 교육제도로 대체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그나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IB교육은 학습자 주도의 꺼내는 교육과 주관식 절대평가 방식을 국제적인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착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혁신에 가장 적합한 롤 모델이다. IB 교육을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제대로 혁신시켜 나가려면 사회의 가치관을 "자율과 책임" 그리고 "다양성의 포용"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교육에 한해서는 정부 정책이 단기 성과주의, 권위주의를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학생 평가와 선발을 대학 자율과 책임으로 돌리고, 학부모는 과거 연장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자녀교육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이제까지 타고 온 새마을호에서 내려 KTX로 갈아 타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새마을호의 종착역은 쇠락하고 낡은 도시인 반면 KTX은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로 미래의 세대를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토론

『IBDP 도입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지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차례-

1. 들어가는 말 : 어원(語源)과 태생의 관점에서 살펴본 IB
2. 세계 각국에서 도입한 IB의 현황
3.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3.1. 승인 및 인증의 문제
 3.2. 대학입학시험제도와 연계문제
 3.3. IB교육과정 채점관 양성 및 신뢰성 확보의 문제
4. 내재적 성찰과 향후 전망
 4.1. 내재적 성찰
 4.2. 향후 전망
5. 나가는 말

1. 어원(語源)과 태생의 관점에서 살펴본 IB

IB는 영어(International) 와 불어(Baccalaureate)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머리글자이다.

왜 하필이면 ‘영어’와 ‘불어’가 결합된 조어가 되었을까?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연합(UN)이 1945년 창설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파견되었거나 세계 각국으로 파견되는 자녀들의 교육은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마치 현재 우리나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외교관 자녀나 상사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현지에 ○○한국국제학교를 설립하듯이 UN에 근무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UN 국제학교가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1947년 뉴욕에서 국제학교가 개교했다. 파견국 자녀가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학습한 이후에 본국 대학으로 진학할 때, 학력인가가 필요했다. 외교가의 공인된 언어는 현재는 다양한 언어가 지원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영어’와 ‘프랑스어’가 대세였다. IB란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IB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는 IB관련 논의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이다.

2. 세계 각국에서 도입한 IB의 현황

2018년 12월 7일 기준, 전 세계에서 153개국이 도입을 했다. 국가별로는 평균 32개 단위학교에서 IB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 세계 각국에서 평균 32개 단위학교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IB프로그램은 평균 1.3개를 활용하고 있다.[21]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외고와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등 25개 단위학교에서 운영 중이다.[22] 전 세계 각 국의 평균 32개 단위학교보다는 다소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경기외고는 2011년 2월부터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IBDP 2년 과정을 시작했다. 현재 경기외고는 현재 수능반도 운영 중이며, IB반은 국제반 한 반에 해당한다.[23]

3.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3.1. 승인 및 인증의 문제

21) 전 세계 153개국, 4964개 단위학교, 6,453개 **IB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2018년 12월 7일 기준)**

22) 국내에 DP학교는 모두 11곳, MYP는 6곳, PYP는 8곳이 운영 중이다. 브랭섬홀아시아,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경기외고,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경남국제외국인학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남산국제유치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캠퍼스(제주국제학교), 서울외국인학교, 대전외국인학교 등

23) 국내 **IB과정을 도입한 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신성호 연구위원, 「IB 교육과정과 평가제도는 우리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료집 참고.**

IB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IBO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IB교육은 인증학교만이 실행할 수 있다. IBO본부로부터 학교로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IB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없다. 교사도 IBO에서 주관하는 2년 과정 연수를 받고 인증을 통과해야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처럼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등 일부에서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일반학교의 범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원자격증을 통해 교원으로 선발되는 시스템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

3.2. 대학입학시험제도와 연계문제

현행 수시와 정시의 체제와 IB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IB가 국가적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단위학교에서만 운영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가피하게 현행 대학입시체제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 말하자면 현행 수시 및 정시를 준비하면서도 IB교육과정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3.3. IB교육과정 채점관 양성 및 신뢰성 확보의 문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이다. 이것이 무너진 교육공동체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더라도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시비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서술형, 논술형 문항 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은 교사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인된 IB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나 통로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초・중・고 12년간 성적이의제기 절차를 경험하며 성장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현장 요구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공정성 확보 방안을 살펴보면, 수시 학종평가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평가방식은 “복수의 평가자에 의한 단계별” 원칙이다. 말하자면, 평가자 A와 B 두 사람이 한 학생의 논술형 답안을 평가한다. 두 사람이 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평균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다른 두 평가자 C와 D에게로 이관한다. 그래서 재평가를 실시한다. 혹은 경험이 많은 선임자가 경가를 실시하여 보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략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점관 양성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람’이 하는 업무인지라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립하는 방안인 것이다. 때문에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이어야 이러한 평가방식이 존립 가능하게 된다.

3.4. 함께 고민할 문제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교체제개편, 대입체제개편,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문제, 고교학점제 등의 현안과도 조율이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야 도입과정에서 거치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4. 내재적 성찰과 향후 전망

4.1. 내재적 성찰

널따란 공간에서 훈도(교사)가 앉아 있는 책상 위에는 아무 것도 없다. 책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간혹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책이 놓여 있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같은 교재도 있지만 다른 교재를 갖고 공부한다. 교재가 다른 이유는 각자의 진도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리를 내어 강독하는 시간이 되면, 학생은 앉아서 몸을 살짝살짝 앞뒤로 흔들며 소리내어 강독한다. 그 시간 교사는 앉아서 몸을 좌우로 흔들흔들 소리내어 강독한다. 날줄과 씨줄이 만나는 시간이다. 강독이 끝나면 이번엔 한 사람씩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작동한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읽고 있던 책을 들고 교사 앞으로 간다. 교사가 보기 좋게 책을 놓으면 ‘배강’(등지고 앉아서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모두 암기하여 낭송하는 것)을 시작한다. 배강을 마치고 나면 확인에 들어간다. 배강한 내용 가운데 특정 대목을 짚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교사가 말한다. “자네가 암송한 내용 가운데 각득기소(各得其所)라는 말이 있지?”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보게.”, “네, 세상 만물이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세상 이치가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의미로 사람뿐 아니라 사물도 마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세상이 순조롭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됐네. 그럼 자네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 좋네.”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다. 실제 이땅에서 불과 100년전만 해도 펼쳐지던 교실 수업방식이었다. 현재도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당이 전국에 더러 존재한다. 물론 일반 주류의 학교는 아니다. 대세는 이미 서구식 방식이 되어버렸다.

①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세종)

②

「나라의 대업을 이어받긴 했지만 나는 지혜도 모자라고 현명하지도 않다. 깊은 못과 살얼음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갈 방법을 모르듯,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인재를 불러들여 나랏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선비들은 의견이 달라 서로의 차이를 조정할 길이 없고, 서로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화합을 이루려는 미덕도 찾아볼 수가 없다. 도대체 어찌 해야 되겠는가?」(광해군)

지난 번 이혜정 소장님 발제에서도 몇 문항 소개가 된 바 있다. 책문(策問)이다. 쉽게 말하자면, 대책을 묻는 문항이다.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는 요구가 평가 문항의 핵심이다. 삶과 공부가 유리되지 않았다. 공부가 삶이고, 삶이 공부였다. 어쩌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보다 더 어려운 평가문항에 답해야 했다. 어떻게 이런 물음에 논술로 답변이 가능했을까?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던 이유가 크다. 만일 우리가 교육사적 관점에서 내재했던 개인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던 교육문화와 전통을 소중하게 잘 지켜왔다면 어떠했을까?

세상이 뒤바뀌었다. 개화가 되고 서양문물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왔다. 당시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은 십대의 어린 나이에 우리 것을 배우기 보다는 일본 유학을 떠나 서구 신문물을 적극 수용했다. 그들의 수용자세는 전통과 단절을 지향했다. 반면 한용운과 이육사는 국내에 남는 길을 선택했다. 한학을 공부하며 온고지신을 지향했다. 훗날 문학사에서 그들의 평가가 상반되었고, 현저히 달랐다. 시사점을 던져주는 흥미로운 대목이라 판단한다.

4.2.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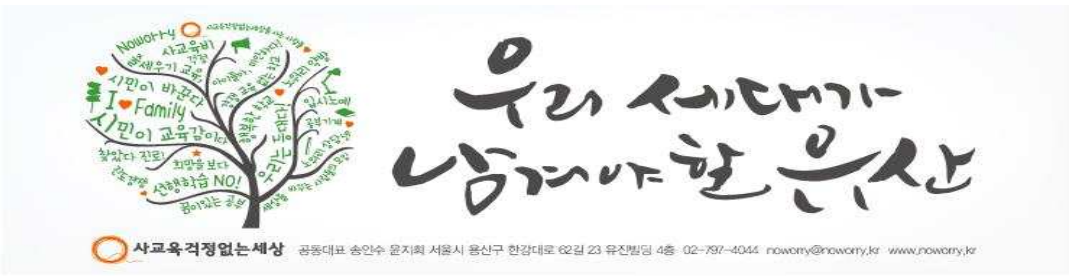
자생적으로 일어난 혁식학교 및 혁신교육의 운동 속에서 더디지만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면

서 교육의 건강성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인된 IB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교육에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것인가. 진지한 검토와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나가는 말

IB는 공인되었고, 훌륭한 시스템이다.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토양이 현저하게 다르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또한 IB를 운영하는 나라들과 다르다.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시범적인 실시를 통해 IB 도입에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주변을 두루 살펴보면서 한국형 논술형 평가가 자리잡고 현장에 착근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계속 되어야 한다.

종합토론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 제도를 모색하는 7회 연속 토론회③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1차 3/21(목) 오후 6시 30분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한다 -서울대 100% 지역균형선발-		■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 구본창(본 단체 정책국장) □ 백선숙(학부모) □ 이기정(구암고 교사) □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2차 4/11목) 오후 3시	5지선다 수능에서 **논술형** **국가시험**으로	“IB는 한국의 낡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 □ 김진우(세종과고 교사) □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 □ 전정원(전앤장논술학원 원장)
3차 4/18(목) 오후 2시		“IB 추진 : 현재 정책 도입은 어디까지 왔고 과제는 무엇인가?”	■ 신동진(본 단체 책임연구원) ■ 윤 준(대구교육청 장학사) ■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 □ 우종수(DGIST·전)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4차 5/2(목) 오후 2시		“IB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신동진(본 단체 책임연구원) □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 □ 신성호(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국내 IB 학교 코디네이터(섭외중) □ 교육부 관계자(섭외중)
5차 5/9(목)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5~7차 토론회에 대한 발제 및 토론자는 5/2(목) 4차 토론회 예고보도 때 발표합니다. ※토론회 세부일정은 단체와 섭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차 5/16(목)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 안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		
7차 5/30(목) 오후 2시	**종합적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를 제시한다